2013년 한일성공회청년세미나 보고서
2013年 日韓聖公会青年セミナー報告書

가자, 핵을 넘어 생명의 세상으로...

ゆこう、核を越えいのちの世界へ...

16th Korea and Japan,
Japan and Korea
Youth Peace Seminar
2013. 08. 12 ~ 16, Gyeongju

はじめに

第６回 日韓聖公会青年平和セミナー ２０１３
～環境・生態系・原発を巡って～　⇒　ゆこう、核を越えいのちの世界へ…
日時：2013年８月12日(月)～16日(金)
場所：韓国・慶州(キョンジュ)および月城(ウォルソン)、古里(コリ)
主 催：日本聖公会青年委員会、大韓聖公会韓日協働プロジェクト委員会

＋主の平和がありますように。

ここに、第6回日韓聖公会青年平和セミナー報告書をみなさまにお届けすることの喜びと感謝をしるすとともに、報告書発行にあたり、以下のことをお伝えし、発行の意味を分かち合えたらと思います。

日本と韓国の聖公会は、毎年交互に開催するという申し合わせにより、青年セミナーとなってから第6回目となる今年、韓国の「慶州(キョンジュ)および月城(ウォルソン)、古里(コリ)」にて開催する運びとなりました。前回の第５回開催が2010年長崎でしたが、2011年3月11日に起こりました東日本大震災の影響により、２年ぶりの開催となりました。この間、大韓聖公会から多くの支援、励まし、祈りを頂きました。今回の青年セミナーはその交わりを土台として開催されました。このセミナーは東アジアの平和を念頭に、両聖公会の宣教課題を分かち合い、担っていく青年を育成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このセミナーは位置付けられています。もともとは日韓交流10年、そして戦争責任の告白を通して、他者の痛みに耳を傾け、歴史の声に応答する中で平和の器となっていこうと1995年から青年交流が続いています。日韓交流20周年の後、青年キャンプが青年セミナーと名称を変え、今に至っています。今年は、韓国の青年たちが中心となってプログラムを考えてくださいました。両国の歴史的な課題を十分に認識した上で、今私たちが直面している、環境・生態系・原発ということを共に思い巡らしながら、韓国側が提示してくださった、「ゆこう、核を越えいのちの世界へ…」を主題として、学び交流しました。
特に今年は韓国側が、日韓青年平和セミナーと名称の中に平和という文字を入れたこと、そして、この報告書が青年自身によって作られ、今も青年たちの交流が続いていることをここに特記したいと思います。報告書として、荒削りな部分が無いわけではありませんが、率直な青年の思い、表現として受け止めて頂ければと思います。
文字に現れる以上の体験を青年たちはしてまいりました。どうぞ今後もみ守りと声援を送って頂けますよう心よりお願いいたします。平和の主と共に。

日本聖公会青年委員会　委員長　司祭　バルナバ小林聡

목차

1. 참가자 명단

2. 세미나 일정표

3. 조별 토론 기록

4. 세미나 기도문

5. 참가자 소감

目　次

１．参加者一覧

２．セミナー日程

３.グループ討論記録

４．セミナーお祈り集

５．参加者感想

Seminar members／参加者一覧

A	
NAME	BELONG
문지현 (Moon Ji Hyun)	**ソウル教区** 서울교구
김민훈 (Kim Min Hoon)	**ソウル教区** 서울교구
장기환 (Chang Ki Hwan)	**プサン教区** 부산교구
金山 将司 (Kanayama Mashasi)	**大阪教区** 오사카교구
松村　希 (Matsumura Nozomi)	**中部教区** 추부교구
浮田　倫太朗 (Ukita Rintaro)	**京都教区** 쿄토교구
小林　玲子 (Kobyashi Reiko)	**中部教区** 추부교구
千松　清美(ｽﾀｯﾌ) (Semmatsu Kiyomi)(st.)	**大阪教区** 오사카교구
丁　胤植(ｽﾀｯﾌ) (Jung Yoonsic)(st.)	**中部教区** 추부교구

B	
양진경 (Yang Jin Kyung)	**ソウル教区** 서울교구
구본민 (Koo Bon Min)	**ソウル教区** 서울교구
韓イエスル (Han Yesul)	**京都教区** 쿄토교구
上原 成和 (Uehara Seiwa)	**沖縄教区** 오키나와교구
大隅　彩恵子 (Oosumi Saeko)	**京都教区** 쿄토교구
永井 啓 (Nagai Kei)	**大阪教区** 오사카교구
大山 洋平 (Oyama Yohei)	**北関東教区** 키타칸토
矢萩　新一(ｽﾀｯﾌ) (Yahagi Shinichi)(st.)	**京都教区** 쿄토교구
양승우(ｽﾀｯﾌ) (Yang Seung Woo)(st.)	**ソウル教区** 서울교구

C	
윤지혜 (Yoon Ji Hye)	**ソウル教区** 서울교구
허재훈 (Hur Jae Hun)	**プサン教区** 부산교구
김은경 (Gim Eun Gyeoung)	**ソウル教区** 서울교구
久保田　愛美 (Kubota Manami)	**京都教区** 교토교구
安藤 由花理 (Ando Yukari)	**東京教区** 토쿄교구
藤井　和人 (Fujii Kazuhito)	**京都教区** 교토교구
松山　健作(ｽﾀｯﾌ) (Matuyama Kensaku)(st.)	**京都教区** 교토교구
小林　聡(ｽﾀｯﾌ) (Kobayashi Satoshi)(st.)	**京都教区** 교토교구
이상훈(ｽﾀｯﾌ) (Lee Sang Hun)(st.)	**教務院**　교무원

2013년 한일성공회청년세미나 일정표

	8/12(월)	8/13(화)	8/14(수)	8/15(목)	8/16(금)
07 : 00 ~ 07 : 30		아침기도	아침기도	아침기도	짐정리
07 : 30 ~ 09 : 00		아침식사	아침식사	아침식사	아침식사
09 : 00 ~ 10 : 00		월성 원자력발전소 이동&관람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강연:마츠야마 켄사쿠 (한일 기독교 관계의 역사) & '잇쇼니 아루꼬 프로젝트' 소개 (진행:마츠무라 노조미)	경주역사탐방1 (불국사, 석굴암)	폐회예배 (집전,설교:양승우 신부)
10 : 00 ~ 11 : 00					
11 : 00 ~ 12 : 00		고리원자력발전소 이동&점심식사			
12 : 00 ~ 13 : 00			점심식사	점심식사	
13 : 00 ~ 14 : 00		고리원전 도착 후 관람 (부산환경운동연합간사 손지은)	조별나눔 및 활동	경주역사탐방2 (양동민속마을) & 쇼핑	
14 : 00 ~ 15 : 00					
15 : 00 ~ 16 : 00	일본측 김해공항 집결				
16 : 00 ~ 17 : 00	경주 포시즌 유스호스 텔 도착&짐정리	경주 포시즌 유스호스텔이동	경주에서 자유시간, 자유로운 저녁식사 (보문단지+ 안압지 야경)		
17 : 00 ~ 18 : 00				휴식	
18 : 00 ~ 19 : 00	저녁식사	저녁식사		전체 모임 (세미나 주제, 소감 등)	
19 : 00 ~ 20 : 00	개회예배 (집전: 이상훈 부제, 설교: 유시경 신부) & 오리엔테이션	강연:양재성 목사(기독교환 경운동연대 사무국장) & 조별나눔			
20 : 00 ~ 21 : 00				유스호스텔 내에서 BBQ PARTY&선물교환	
21 : 00 ~ 22 : 00					
22 : 00 ~ 23 : 00	밤기도	밤기도	밤기도		

* 사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습니다.

2013年　日韓聖公会青年セミナー日程

	8/12(月)	8/13(火)	8/14(水)	8/15(木)	8/16(金)
07:00～07:30		朝の祈り	朝の祈り	朝の祈り	荷物整理
07:30～09:00		朝食	朝食	朝食	朝食
09:00～10:00		月城(ウォルソン)原子力発電所へ移動、見学 (ガイド:李相洪　慶州環境運動連合事務局長)	講演:松山健作 (日韓キリスト教関係史) & 一緒に歩こう！プロジェクト報告(進行:松村希)	慶州歴史探訪1: 仏国寺(ブルグクサ) 石窟庵(ソックラム)	閉会礼拝 (司式、説教:梁承友司祭)
10:00～11:00					
11:00～12:00		古里(コリ)原子力発電所へ移動＆昼食			
12:00～13:00			昼食	昼食	
13:00～14:00		古里(コリ)原子力発電所見学 (ガイド:釜山環境運動連合幹事　ソン・ジウン)	グループ活動	慶州歴史探訪2: 良洞村(ヤンドンマウル) & ショッピング	
14:00～15:00					
15:00～16:00					
16:00～17:00	受付: 慶州フォーシーズンユースホステル	ユースホステルへ移動	フリータイム: ポムン観光団地/ 雁鴨池(アンアプチ)の夜景など		
17:00～18:00				ブレイク	
18:00～19:00	夕食	夕食		全体の分かち合い (セミナー主題、感想等)	
19:00～20:00	開会礼拝 (司式:李祥憲執事、説教：柳時京司祭) & オリエンテーション	講演:梁在成牧師(キリスト教環境運動連帯事務総長) & グループ活動			
20:00～21:00				バーベキューパーティー & プレゼント交換	
21:00～22:00					
22:00～23:00	夕の祈り	夕の祈り	夕の祈り		

*変更の可能性があります。

조별 토론 기록

8월13일 (원자력 발전에 대해)

(토론 주제)

1.원전 탐방과 강연에 대한 소감
2.평소 원자력발전에 관해 어떻게 생각했나?
3.그리스도인으로서 원자력 발전에 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 과제: 폐회예배 대도를 위한 기도문 작성.주제는 원자력 발전

Group A

1.원전에 대한 자신의 생각

•후쿠시마 사고 전까진 원전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해외에서는 지진에 의한 원전사고를 체르노빌 사고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는 것을 느꼈다.

•'후쿠시마 사고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지 않으면 이 세계도 사라진다.' 는 말에 충격을 받았다.

•원전이 존재하는 한, 그 피해에서 벗어날 수 없다.(우라늄 채광과 핵 폐기물 문제 등)

•본래 자연계에는 없던 방사성 물질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 이상 자연에 대해 안심할 수 없다.

•원전사고 전 후 세계가 변하였다. 이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미래(생명)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피폭에 대한 두려움은 항상 느끼고 있지만, 방사능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그 위험성을 알리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원자력은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만, 이 세상에 실수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2.에너지 팜(원자력 홍보관)과 환경연대

•원전의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원전의 구조 등)

•원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위험성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에너지 팜(정부 측)과 환경연대의 이야기를 듣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다.

•정부와 환경연합의 주장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グループ討論記録

8 月 13 日（原子力発電について）

(討論主題)

1. 原発フィールドワークと講演に対する感想
2. 今まで原子力発電に関して、どのように考えていたか?
3. キリスト者として原発に対して、どのように行動するべきか?

→ 課題:閉会礼拝代祷のための祈祷文作成。主題は原発

Group A

1.原発に対する自分の考え

·福島原発事故の以前は原発について関心を持っていなかった。

·海外では､日本の震災による原発事故を､チェルノブイリの事故とセットで考えているのかと感じた。

·「福島の事故について、十分な反省を持たずにこのままにしていたら、世界がなくなる」という言葉にショックを受けた。

·原子力をやる限り被害は避けられない。(ウラン採鉱から原発維持、廃棄物に至るまで)

·本来自然界にはないはずの放射性物質がある事実を思う時､事故の後､自然に対する安心感がなくなってしまったのを感じている。

·震災後、震災前とは世界が変わってしまったと感じ、これが夢であったらと思う。

·未来(生命)に対する責任感が欠如していると感じた。

·被曝の恐怖は常に感じているが､放射能は目に見えないので政府からその危険性について知らせなければ　現実的に知る方法がない。

·原子力は失敗しない人を必要とするが、世の中に失敗しない人は存在しない。

2.エネルギーファーム(原子力広報館)と環境連帯

·原発の詳細な情報を得ることができた(原発の仕組みなど)。

·｢原発とはどんなものだろう，原発の危険性をどのくらい把握していたのか｣考えられる時間だった。

·エネルギーファーム(政府側)と環境連帯の意見を聞いて客観的な判断をすることができ､貴重な機会を得た。

·政府の人、環境連合の人の主張の違いを感じた。

•에너지 팜의 설명은 잘 알 수 있었지만, 민감한 질문에는 피하는 듯한 미묘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부정적인 측면들을 알게 됨)

•원자력 홍보관의 이야기만 들으면 너무나도 훌륭하고 편리한 에너지이지만, 원자력은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한 에너지이기도 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3. 원전과 평화로운 마을의 대조

•원전에 대한 일본인과 한국인(지역 주민)간의 인식 차가 존재했다.

-원전 근처에서 낚시를 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해안 근처에 살고 있는 모습에 놀람.

•평화로운 원전의 광경을 보며 일본을 떠올림.

-'일본도 이런 때가 있었지……. 만약 이곳에서 사고가 난다면?'

•고리 원전의 비리는 일본과도 상당히 닮아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까지 그 위험성을 알지 못했듯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몸으로 실감하지 못한다.

•현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원전 주변을 걸으며 "원전으로 인한 아픔을 함께 나눠주세요."라 말하던 환경연대의 한마디를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다.

4. 앞으로의 원전은?

•원전의 개체 수를 늘리지 않되, 현존하는 원전에 있어서는 더욱 더 안전을 기해야 한다.

•원전 문제도 결국 에너지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산업용 전기가 더 저렴하다는 점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대체 에너지)의 개발이 절실하다.

•원자력 발전소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지역 주민과의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원전은 평생 안고 가야 할 문제인 만큼 부정에 대한 투명한 감시와 올바른 정보가 필요하다.

•원자력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핵 발전을 포기한 나라(독일·덴마크)와 그렇지 않은 나라(한국·미국·중국)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핵 관련 일을 시작한 것에서부터 인간과 생태계의 파멸은 피할 수 없다. 그러한 원자력은 우리가 전기를 필요로 함으로써 생산되는 힘이기 때문에, 알면서도 전기사용을 줄이지 않는 우리의 생활 패턴에 변화가 필요하다.

·エネルギーファームではよく説明してもらったが、 敏感な質問には避けるような微妙な雰囲気を感じた。(不正の数々を知った)

·エネルギーファームの話だけ聞くと、とても立派なエネルギーだが、原子力と言うのは人間が上手く扱うことの出来ない部分であることを感じた。

3. 原発と平和な村の対照

·原発に対して日本人と韓国人(地域住民)の間に認識の違いが存在した。

(原発のそばで釣りをしたり、多くの人々が 海岸に住んでいて驚きを感じた)

·フィールドワークへ行き、一見平和で、整備されている様子は、日本の原発前のようだと感じた。

-「日本もこんな時があったなぁ...もしここで事故が起きたら?」

·古里原子力發電所の不正は日本の原子力発電所とも非常に似ていると感じた。

·福島も原発事故の以前はその危険性を全く知らなかった。事故が起こらない限り、体で実感できない。

·原発の周辺住民がどんな思いで住んでいるのか意見も聞く機会があったら良いと思う。

·環境連合の人が、「(原発による)痛みを知ってください」と言われたが、今日現地を歩いて、それを感じられたか、自分に問うている。

4. これからの原発は?

·原発の個体数を増やすことなく、現存する原発においてはより一層の安全に貢献しなければならない。

·原発の問題も結局エネルギーに対する考えが変わらなければ意味がない。

-産業用電気の方が安いという点など。

·持続可能なエネルギー(代替エネルギー)の開発が切実である。

·原子力発電所の一方的な決定ではなく、地域住民との意思疎通(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必要である。原発は一生抱えねばならない問題。 不正に対する透明感のある監視と正しい情報が必要である。

·原子力は人間が上手く扱うことの出来ない部分であるため、原子力発電を放棄した国(ドイツ· デンマーク)とそうでない国(韓国· 米国· 中国)を比較する必要がある。

·核関連の仕事に手をかけた時から人間と生態系の破壊は避けられない。このような原子力は私たちが電気を必要とすることで生産される力であるため、知りながらも電気の使用を減らさない私たちの生活パターンに変化が必要である。

5.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신 능력으로 개선 가능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

•우리의 전기 소비 패턴이 금방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극단적인 편의 감소보다는, 교회 안에서 조금이라도 낭비를 줄이고 자연과의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의견이 다르다고 싸울 필요는 없다. 그 차이를 받아드리고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에 따라 살아가는 삶. 사회적인 문제도 깊이 들여다보면 신앙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좁은 문과 넓은 문(핵 위험성:편리함)의 사이에서, 우리는 생명이 있는 좁은 문을 선택해야만 한다.

•기도를 통해 미래로 이어질 수 있는 작은 행동을 일으키자.

-지금까지의 일을 회개하고 헛된 욕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원자력을 쓰는 것으로 인해 아픔 받는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발견하기 전까지 고통 받을 사람들을 위해.

-자연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5.キリスト者としてするべきこと

·神様が人間にくださった能力で改善が可能な新しい技術を開発する。

·私たちの電気の消費パターンがすぐに変わるわけではないため極端な便利の減少より、クリスチャンがまず無駄を減らし、自然との共存を教会が示していくことが重要だと考える。

·意見が違うことに対し争う必要はない。 理解の違いを受け入れ、行動で示すことが重要である。

·聖書に従って生きる大切さ。社会的な問題もよく見てみると、信仰的に近付くことができる。

-狭い門と広い門(核の危険性：便利さ)の中で、私たちは生命のある狭い門を選択しなければならない。

·祈りを通して 将来につながるように、小さな行動を起こしていく。

-これまでのことへの悔い改め、人間の欲に勝てるように。

-私達が原子力を使うことで傷ついた人々のために。

-新しい技術を発見するまで苦しむ人々のために。

-自然との関係回復のために。

Group B

[야외 활동과 강연의 감상]

-시골에 원전이 있다. 사용하는 사람은 도시 사람인데... DVD에서 노인의 이야기"전기를 서울에서 쓴다면 서울에서 만들어라." 지속 가능한 에너지라고 한다면, 도시에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원전에 관한 2개의 모순(한국측)

경제면의 모순…원전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싸다.(석유의 3분의 1정도)

그러나 폐기물 처리 비용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환경 면의 모순...폐기물(CO2)이 적다.

그러나 폐기물을 처리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

↑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원전에는 83%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원자력 발전 추진파)이 승리를 거두었다.

일본 국민은 경제(생활면) 우선인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의 요시다 소장의 사망은 그다지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미디어 스폰서는 전력 회사이니까.

-반대 뿐만 아니라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인간의 행동 때문에 환경이나 생태계가 비정상적으로 되어 있다.

-한국에서는...에너지를 많이 쓴다 → 에너지가 부족하다 → 원전을 짓는다(←이래서는 안돼!)

-"바로!"가 아니라 천천히 앞을 바라본다. 마라톤처럼 시간을 두고 조금씩.

-일본 원전과 한국 원전: 경제적으로 약한 장소에 만들어 지역에 보조금을 주고 지역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 원전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일본에서는 의식을 가지고 알려고 하지 않으면,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숨겨진 정보가 많다.

-오염수가 방출되고 있음을 일본인은 최근에 알았다. 이 세계(특히 미국)는, 지진 재해 직후부터 보도되어 왔다.

-지진의 사건이 풍화되어 가고 있다. 일본인이 지금 생각나는듯이 말을 하고 있다.

-이와키시...방사능은 낮지만, 해일의 피해는 심각 → 지금도 일할 곳이 적다. = 술집이나 파칭코 가게가 번창하고 있다.

-다음 세대 생각을 하다. 핵 폐기물을 다음에 남겨서는 안 된다.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공부한 내용이 정말 옳은지 불안하다. 혹시 틀려도 책임을 질 수 없다.

-각 개인이 손익 없이 실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서울 교구 사무소의 지붕에는 태양광 패널이 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악순환의 이유

지속 가능 에너지에 흥미가 없어서는...

자신이 있는 곳에 귀찮은 것은 필요 없다고 다른 지역으로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 원전은 시골에, 미군 기지는 오키나와에.

-원전이 없어진다면 다 해결됐다! ←이것이 아니다.

-원래 에너지라는 것은 영원히 쓸 수 있는 것인가? 장래적으로는 "에너지를 얻는다"는 생각이 잘못한 것이 아닌가? 그 첫걸음으로서 탈핵.

- 일본 동북 지방의 그리스도인

"우리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교회 활동에 참가해 주었으면 한다. 잊지 말고, 기도해 달라." 이것으로 연결이 된다. 반성이나 후회의 벽을 제거할 수 있다.

Group B

[フィールドワークと講演の感想]

-田舎に原発がある。使っている人は、都市の人なのに…。ＤＶＤでの老人の話「電気をソウルで使うなら、ソウルで作れ。」持続可能エネルギーなら、都会で作れるのでは？！

-原発に関する２つの矛盾（韓国側）

経済面の矛盾…原発で作られた電気は安い。（石油の３分の１程）

しかし、廃棄物処理にかかる費用は全く知らされていない。

環境面の矛盾…廃棄物（ＣＯ２）が少ない。

しかし、廃棄物を処理するには莫大な費用がかかる。

↑日本も同じである。

原発には８３％もの反対があったにもかかわらず、自民党（原発推進派）が勝利を収めた。

日本国民は経済（生活）面優先なのか…？

-福島第１原発の吉田所長の死亡はさほど大きく取り上げられなかった。韓国はもちろん、日本でもあまり知られていない。＝　メディアスポンサーは電力会社だから。

-反対だけでなく解決策を見つけなければならない。

-人間の行いのせいで環境や生態系が異常になっている。

-韓国では…エネルギーを多く使用する→エネルギーが足りない→原発を作る（←これでは、ダメ！）

-「すぐに！」ではなく、ゆっくりと将来を見据える。マラソンのように時間をかけてでも少しずつ。

-日本原発と韓国原発：経済的に弱い場所に作り、地域に補助金を与え、地域の活性化を図っている。＝　原発が危ないことをわかっている。

-日本では、意識をもって知ろうとしなければ、情報が得られない。隠された情報が多くある。

-汚染水が放出されていることを、日本人は最近知った。が、世界（特にアメリカ）は、震災直後から報道されていた。

-震災の出来事が風化されていっている。日本人でも、今思い出したように話をしている。

-いわき市…放射能は低いけど、津波の被害は甚大。→今なお、働くところが少ない＝居酒屋やパチンコ店が繁盛している。

-次の世代のことを考える。核廃棄物を次に残してはいけない。

-自分の知っている情報・勉強した内容が本当に正しいのか不安がある。もし、違っていても責任がとれない。

-個人個人で損得なしに実行していく必要があるのでは…。ソウル教区事務所の屋根には太陽光パネルがある。小さなことから始めていく必要がある。

-悪循環の理由

持続可能エネルギーに興味がないのでは…

自分の所には面倒なものはいらない。他の地域に押しつける傾向がある。原発は田舎へ、米軍基地は沖縄へ。

-原発がなくなれば、すべて解決！←では、ない。

-そもそも、エネルギーというものは永久に使えるのか。将来的には、「エネルギーを得る」という発想が間違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その、第一歩として脱原発。

-東北のキリスト者の声

「やってほしいことは、教会活動に参加してほしい。忘れないでほしい。祈ってほしい。」これによって、つながりができる。反省や悔いの壁を取り払うことができる。

Group C

[경주의 원전을 견학한 소감]

-출신이 경주에 가깝고 이번에 처음으로 월성, 고리 원전을 견학했다(지금까지 지나가는 것에 불과했다). Energy Farm⇒ 월성에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사는 사람을 생각했다. 2년전의 후쿠시마 원전을 떠올렸다. 주목한 것은 전기 생산에 드는 돈이 아주 싸게 적혀 있다는 것. → 의문:개발에 드는 비용 그리고 폐기물 처리 비용은 포함되어 있는가? 원전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야 할지 망설였다. 저녁 강연에서 농촌사회로 돌이키는 것이 좋은 것인가?라고 생각했다. 앞으로 생각해보고 싶다.

-두려웠다. ⇒ 후쿠시마처럼 방사성 물질이 날지 않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원전을 구경할 용기가 필요했다. 방사능이 무서운 것은 나가사키에 살고 계신 어머니의 원폭 체험담, 피폭의 경험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할머니는 피폭자 건강 수첩(?)을 취득했고 의료 특별 수당을 받고 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원전을 보지는 못 했다. "앞으로 원전에서 피해를 받는 사람이 자신이 살아가는 동안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태연히 전기를 쓴다. 이것은 중요한 것으로 주의해야 한다. 그 일을 알아차린 것이 다행이었다.

-고리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보통처럼 낚시를 하고 있어 놀랐다. → 전날 뉴스에서 방사능 누출이 보도되고 있었기 때문에. 뉴스에서 작업원이 피폭당했다고 들었다. 월성의 3호기는 다른 것과 비해 2.5배? 높이 누출되고 있다. 그래도 태연하다. ⇒ 우리는 방사능과 공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절망했다. 오염된 해산물을 먹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걸까? 원자력 발전에 어떻게 저항해 나가야 할지 생각해보고 싶다.

-3.11이전의 원전에 대한 생각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아무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체르노빌 사고가 있어도 안전신화를 믿었다. ⇒ 하지만 이제 3.11이전의 의식으로 돌아올 수 없다. 이 선생님(월성 원전을 안내해 주셨던 선생님)이 "하느님께서 처음에 창조된 질서로 돌리는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인상에 남았다. 좀더, 원전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원전에 대해 의식한 것은 없었지만, 3.11때 센다이 출신의 일본어학과 선생님이 가족과 연락을 못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센다이로 응원 영화를 대학에서 만드는 과정에서 즉시 재건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한일 세미나 준비회에서 본 영상에서 원자력의 공포를 보았다. 원전의 위험성을 인식했다. 이번 답사로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 원전의 직원이 설명하지 않은 것에 분노했다.

-이번에 원전을 보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라고 단순히 생각하였다. 주위 사람이 평소와 같았던 것에 놀랐다. 그러나 3.11이전에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을것이다. 학교 교육에서 원전은 청정(클린) 에너지로 배웠다. ⇒ 3.11때 그렇게 위험을 느끼지 않았다.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가치관을 바꾸는 기회가 되었다. 저녁 강연의 자연주의, 생태계와 같은 말의 정의가 이해하기 어려웠다. 생태계도 클린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고, 리스크가 있다.

-3.11을 기준으로 원자력이 괜찮은 에너지라는 의식이 싹 사라졌었다.

-공부를 해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도 위기감을 느끼고 변화할 수 있는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Group C

【慶州の原発を見学した感想】

-出身が慶州に近いが、今回初めてウォルソン、古里の原発を見学した（今まで通り過ぎる所だった）。Energy Farm⇒ウォルソンにあるものを見て、そこに生きる人のことを思った。2年前の福島原発を思い出した。注目したのは、電気の生産にかかるお金がとても安く書かれていること。→開発や廃棄物処理にかかる費用は含まれているのか？原発を背景に写真を撮るべきか迷った。夜の講演で、農村社会に還ることが善なのかと疑問に思った。これから考えていきたい。

-こわかった。⇒福島のように放射性物質が飛んでいないのは分かっていても、原発を見学するのは勇気が必要だった。放射能が恐いのは、長崎に住んでいた祖母から原爆の体験談、被爆の経験を聴いているから。ちなみに、祖母は被爆者健康手帳（？）を取得しており、医療特別手当を受けている。こんなに近くで原発を見ることはなかった。「原発で被害を受ける人が自分が生きている間はいない」と思っている人が、平然と電気を使い続ける。これは重大に注意しなくてはならない。そのことに気づけたことが良かった。

-古里原発近くに住んでいる人々が、普通に釣りをしていて驚いた。前日、ニュースで放射能漏れが報道されていたから。ニュースで作業員が被ばくしたと聞いた。ウォルソンの3号機は、他と比べて2.5倍？高く（放射能が）漏れている。それでも平然としている⇒我々は放射能と共存しなくてはならないのか？と絶望した。汚染された海産物を食べることは仕方のないことなのか？原発にどのように抵抗していくのか考えていきたい。

-3.11以前の、原発に対する考えは思い出せない（何も考えていなかったのではないか）。
チェルノブイリ事故があっても安全神話を信じていた。しかし、もう3.11以前の意識に戻れない。李先生（ウォルソンの原発を案内してくださった先生）が、「神様が最初に創造された秩序に戻すこと」とおっしゃっていたことが印象に残った。もっと、原発について勉強したいと思う。

-原発について意識したことはなかったけれど、3.11の時に仙台出身の日本語学科の先生が家族と連絡を取れなかったことを覚えている。仙台への応援ムービーを大学で作る過程で、すぐに復興するものと思っていた。セミナーの準備会で見た映像で原子力の恐怖を目の当たりにした。原発の危険性を認識した。今回のフィールドワークで、原発の危険性について、原発の職員の方が説明しなかったことに怒りを覚えた。

-今回、原発を見て、こんなに近くにあるんだ、と単純に思った。周りの人が普通だったことに驚いた。しかし、3.11以前は日本でも同じだったはず。学校教育で原発はクリーンエネルギーと習った。⇒3.11の時そんなに危険を感じなかった。最近やっと分かってきた。だから今回お話を聞いて、自分の価値観を変える機会となった。夜の講演の自然主義、生態系といった言葉の定義が分かりにくかった。生態系もクリーンエネルギーも維持のためには、労力が必要で、リスクがある。

- 3.11を基準として原子力がなかなか良いエネルギーという意識が全部消えた。

-勉強をして知識を持っていることでも危機感を感じて変えていく運動をすることができると思った。

-원자로가 지구를 어떻게 바꾸게 될지 위험성을 느꼈다. 사람들이 지구가 방사능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고 전기를 낭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나부터라도 의식을 바꿔야겠다.

[마무리? 성경의 인용]
-성서에도 지금 시대에 이어진 메시지가 있다는 건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선악의 지식의 열매=원전
⇒ 닿아서는 안된다 ⇒ 닿아 있는 지금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를 생각한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비유를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전해 보려고 한다.
-만유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느님이라는 인식이 양목사님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근원이지 않을까 싶다.
-전 세계의 피조물은 만유의 세계에 내재되어 있다. 신에 대해 강조되고 있다. ⇒ 신을 느끼며, 핵을 넘어서 연결되어 간다.

[각각의 감상을 바탕으로 생각한 기도집]
-주여, 방사능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소서. 현재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공포와 싸우고 있습니다. 일어난 것이 잊혀질 일이 무섭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끊임 없는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는 죽음을 매우 먼 존재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자신을 파괴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죽음을 성찰하고 겸허하게 살아가게 해주소서. 서로 살도록(공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여, 세상에는 우리에게 거짓을 행하여 이익을 얻는 뱀 같은 교활하고 나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속이는 중에 분노 뿐만 아니라 개선을 위한 용기를 주소서.
-우리는 항상 잘못을 느끼고 반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느냐?″ 항상 이 말씀을 희망으로 깨우치게 해주소서.
-전 세계의 피조물로서 우리들이 하느님을 느끼면서, 주위와 나누고, 핵이나 잘못을 극복할 수 있도록.

-原子炉が地球をどのように変えることになるのか危険性を感じた。 人々が地球が放射能のために滅びるようになるだろうと考えないで電気を浪費するのは大変重要な問題だ。なので自分自身からでも意識を変えるつもりだ。

【まとめ？　聖書の引用】

-聖書にも今の時代に続いたメッセージがあるということは確かに言うことができる。
-善悪の知識の実＝原発
⇒触れてはいけない⇒触れてしまった今「お前は今どこにいるのか」を思い出す（我々は何をすべきなのか）。キリスト者として、このたとえを用いて、人々に伝えていきたいと思う。
-万物の中に内在しておられる神。この認識が梁牧師が活動できる根源ではないだとうかと思う。
-全世界の被造物は、万有の世界に内在している。神について強調されている⇒神を感じながら、核を乗りこえて、つながっていく。

【それぞれの感想を踏まえ、それぞれ考えたお祈り集】

-主よ、放射能の深刻な状況について知らなかったことをお許しください。現在、私たちは見えない恐怖と戦っています。生じたことが忘れ去られることが恐い。すべての方の絶え間ない祈りが叶いますように。
-主よ、私たちは死を非常に遠い存在として考えてきました。その結果、私たちは自身を破壊して生きているようです。私たちに憐れみをお与えください。私たちは死を省察して謙虚に生かしてください。互いに生きるように（共存できるように）導いてください。
-主よ、世の中には私たちに偽りを行い利益を得る、蛇のようなずるがしこい悪い人がたくさんいます。彼らが偽っている中に怒りのみならず改善をするための勇気をください。
私たちは常に過ち、気づき、反省を繰り返しています。「あなたはどこにいるのか」常にこの御言葉を希望をもって悟らせてください。
-全世界の被造物として私たちが主を感じながら、周囲と分かち合い、核や過ちを乗り越えていけますように。

8월14일 (한일 관계에 대해)

(토론 주제)

1.후쿠시마 사건의 피해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
2.악화되고 있는 한일 현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3.그리스도인으로서, 한국과 일본의 국민으로서 양국과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4.한일 양국 교류의 맥락에서 한일성공회청년세미나의 의미는 무엇인가?
➔ 과제: 폐회예배 대도를 위한 기도문 작성. 주제는 한일 양국 관계

Group A

1.원전사고에 대한 인식

①한국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두려움을 온몸으로 느끼는 일본인과 달리,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한국인은 둔감한 편.
•원전의 대한 부정, 방사능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도 인식하고 있다.(먹는 것과 직결)
•언론에서는 방사선의 수치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만약 일본에 살고, 후쿠시마 근처였다면 나 또한 데모에 참여했을 것이다.
Q.사고 후, 일본에 대한 인상이 달라졌는가?
-불쌍하다.
-마음이 편하지 만은 않았다.
-'신의 심판'이란 말이 인터넷에 나돌았지만 그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했다.

②일본

•일본인으로서 방사능 유출로 세계에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있다.
•환경 방사선량과 식품의 방사능에 대해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아파도 아프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많다.
(후쿠시마 피해자들 중에는 아픔을 내색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원전반대시위와 같은 사회운동이 언론에 나오지 않거나 제대로 정치에 반영되지 않을 때, 일본에 대한 희망이 없음을 느끼게 한다.
Q.'잇쇼니 아루꼬 프로젝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원은?
-피난소와 같은 큰 조직에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
-관공서와 성공회의 연계가 있었다.
(성공회 활동을 관공서에 알림→정부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성공회 활동을 소개시켜 줌)

→한국과 일본

•방사능에 대한 걱정은 두 나라가 함께 느끼고 있다.
•원전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아픔은 당사자의 입장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잘 알 수 없다.
(일본인들이 한국 식민지 역사의 피해를 잘 알지 못했다는 것과 마찬가지.)

8月14日（日韓関係について）

(討論主題)

1.福島原発事故の被害者をどのように助けることができるか?
2.悪化している日韓の現状に対して、どのように考えるか?
3.キリスト者として、韓国と日本の国民として、両国と東北アジアの平和のために何をするのか?
4.日韓交流において日韓聖公会青年セミナーの意味は何なのか?
→課題:閉会礼拝代祷のための祈祷文作成. 主題は日韓関係

Group A

1.原発事項に対する認識

①韓国

·福島原発事故によって原子力発電所に対する恐怖を全身で感じる日本人と違い、(「距離」の理由)韓国人は鈍感。
·原発の不正、放射能の危険性については、韓国でも認識されてきている。(食べ物に直結)
·放射線の数値も、メディアでは言わない
·もし日本にいて、福島が身近であったらデモをしたかもしれない。
Q.事故後、韓国では日本に対する印象が変わったのか。
ー「かわいそう」と思った。
ー原発事故に対し「いい迷惑だ」というようには思っていない。
ー「神の裁き」という言葉がネット上に出たりもしたが、それは違うと思う。

②日本

·日本人として放射能漏れで世界に被害を与えたことに責任を感じている。
·日本では、環境の放射線量や食品の放射能について気にせざる得ない。
·痛んでいる人は痛いと言えない人が多い。(福島では、当事者が声を上げられないことが多い)
·原発のことに関しても、デモなどの反対運動がメディアに出なかったり、十分に政治に反映されなかったり、日本の国に対して希望のなさを感じることがある。
Q.「いっしょに歩こう！ プロジェクト」に対して、政府の支援は?
ー大きい組織（避難所など）に政府は支援をしていた。
ー役所と聖公会の連携があった。
（聖公会の活動を役所に知らせておくことで、政府が支援物資などで困っている人に聖公会の活動を紹介する等）

→日本と韓国

·放射能に対する心配は、両国共に感じている。
·原発被害者の苦しみは関心を持たないとよく知ることができない。
(韓国・朝鮮の植民地の歴史の被害をよく知らなかったことと同じである)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서로 둔감했다.

2.한일 양국의 역사인식

①한국

•한국 언론도 정치적 의도에 따라 보도되고 있다.

•역사 교과서의 3분의 1이 식민지 시대의 것으로 이데올로기적 교육을 받아왔다. 한국의 '한(恨)'. 그것은 당한 사람만이 알 수 있다.

•한국에는 친일파 명단이 있다.('친일'은 한국에서 멀리하는 말)

•일본 정치가의 망언은 반드시 뉴스에 나온다. 그와 일본 시민의 반응이 함께 보도되고 있다.

•미야자키 하야오와 같은 영향력 있는 인물의 목소리도 들려 온다.

•전쟁에 대한 책임을 사죄를 한 독일과 달리, 일본은 별다른 행동을 취하고 있지 않다.

•선진국의 국민으로서 전후 책임의 역사 인식의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길 바란다.

•과거 식민지 역사와 주변국들에게 받아온 위협……. 한국의 두려움을 객관적으로 생각해보길 바란다.

②일본

•영향력 있는 사람의 한 마디가 나라 전체의 의견으로 보이는 것에 분노.

(하시모토 발언,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한국 식민지 역사의 피해를 잘 알지 못했다.

•현재 일본인의 70%는 전후 책임(배상 청구)을 하려 하지 않는다. 이는 일본 전체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국인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일본 또한 국민의 뜻이 아닌, 국가의 강압적인 의사로 인해 전쟁의 아픔을 느꼈다. 하지만 정부의 뜻에 따라가버린 일본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 맞서지 않고 포기해 버리는 개인주의적인 사고가 있다. (과거 오키나와 미군 기지와 같은)

•역사 인식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지 않고, 듣는 것이 일본인으로서 더 중요하다 생각한다.

3.한일 양국의 관계 악화

•정부 간의 관계와 개인 간의 관계는 다르다.

•비전을 생각하지 않고 눈 앞의 이익만 보고 정치가를 선출하고 있다.

•서로 상대 나라를 나쁘게 말하도록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お互いに他人の痛みを理解することに鈍感だった。

２. 日韓両国の歴史認識

①韓国

·韓国メディアの報道も、政治的意図によって伝えていると思う。

·歴史教科書の３分の１が植民地時代のこと。そういうイデオロギーの強い教育を受けてきた。

韓国の「恨」、それを受けた者にしか分からない。

·韓国には親日派のリストがある。(「親日」は韓国では疎まれる言葉)

·日本の政治家の暴言は必ずニュースに出る。それといっしょに日本の市民の声も出る。

·宮崎駿などの反戦の声も聞こえてくる。

·戦争に対する責任告白を、ドイツと違って日本は国として持っていない。

·日本には戦後責任の歴史認識の観点を持ち、先進国の国民としての話を望む。

·過去、植民地歴史と周辺国からの脅威…韓国の恐れを客観的に考えてみてほしい。

②日本

·影響力のある人の一言が国全体の意見として見えることに飽き飽きする。

(橋下発言、 靖国神社参拝のことなど)

·韓国植民地の歴史の被害をよく知らなかった。

·戦後責任を「今」の日本人に言われても(賠償請求について)・・という意見を７割の日本人が持っていると聞く。これは日本全体の責任があるにも拘らず彼らは韓国人の声を聞こうとしていない。

·日本の国民は、国家の意思に乗せられて戦争に行き、飢えや空襲、原爆を受けた。しかし、政府の意思に従ってしまった日本人としての責任があると考えている。

·恐れないために断念してしまう個人主義的な思考がある。(過去沖縄基地問題のような)

·歴史認識に対しても、声にならない声を聞いていくことが日本人として重要ではないかと思う。

3. 日韓両国の関係悪化

·政府同士の関係と、個人の関係性は違う。

·ビジョンでなく、目先の利益で政治家が選ばれているようにも感じる。

·韓国も､日本の国も､政府が相手の国を悪く言うように国民に伝え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すら感じる。

•한일 양국의 미디어는 정부와 함께 움직이고 있다.

(그로 인해 목소리를 내는 것을 포기하고, '굳이 내가 나서지 않아도 괜찮겠지.'라는 방관자적 입장과 함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됨)

•영향력 있는 사람의 발언만 전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서로에 대한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면 한일 관계는 개선되지 않는다.

4.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우리가 가장 뛰어나다는 국가주의, 민족주의와 같은 선민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아픔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양국 관계는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 피해와 식민지 역사)

•앞으로도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에 대한 태도로 활동해 나가고 싶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존중할 점이 있다.

•서로 미워할 필요는 없다.

5. 한일 청년 세미나의 의미

•얼굴을 마주하고 앉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며, 그 동안은 알지 못했던 역사 인식의 차이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다.

·日韓両国のメディアは政府の味方である。

ーそのため、声を出すことを放棄して「あえて私が乗り出さなくてもいいだろう」という無力感と消極的な態度を見せている。

·影響力の大きい人の発言のみが伝わ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

·お互いに対する悩みを理解しないと、日韓関係は改善できない。

4. 東アジアの平和のためのクリスチャンの姿勢

·自分たちが最も優れていると言う国家主義、民族主義のような選民意識から脱しなければならない。

·受けた者でなければ分からない痛みを理解しようとする努力で両国の関係はいくらでも改善できる。

(福島原発被害と韓国の植民地歴史)

·これからもいっしょにキリスト者としてのいのちへの態度で活動していけたらと希望を持った。

·お互いに異なるから尊重 する点がある。

·お互いに憎む必要はない。

5. 日韓青年セミナーの意味

·向かい合って顔を見ながら語り合うことに感謝し、今まで知らなかった歴史認識の違いや痛みを理解しお互いに 尊重 する心を持つ。

Group B

[한일 관계에 대해]

-강화도조약...불평등 조약을 맺었다. 한국의 의견은 전혀 없었다.
-한국측의 의견: 한국은 약한 나라였다. 청일, 러일 전쟁이 일어났던 곳. 힘이 남아 있어도, 반대 및 요구를 하지 못했다.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강국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서 동시에 자국에 대한 불만(군사적 약함)이 있다.
-아직도 한국인에게는 일본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축구에서도 일본만큼은 지고 싶지 않다.
-나라의 정치와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은 다르다.
예)사제는 싫어도, 신도는 좋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정치가들은 옥신각신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은 불쌍하다고 생각한다.
-'당신과 나'의 교제가 필요하다. 하느님의 나라를 구하자.
-한일 관계를 인식한 것은, 미디어나 W배의 공동 개최 정도부터였다. 좋은 의미에도 나쁜 의미에도 인식함에 따라 한일 관계가 쌓여 갔다.
-"다양성의 일치"라는 말을 편리하게 많이 쓰는 것은...그 한마디로 모든 게 해결된 것처럼 보인다. 전날 양 목사가 말씀하신," 좁은 길로 들어가세요. 마지막에는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 "다양성의 일치"라는 말을 편리하게 많이 쓰는 것은 이에 들어맞지 않는다. 넓은 길로서 정리해 버렸다.

[함께 걷자! 프로젝트 DVD를 보고]

정말로 마음이 아프다(한국인)
↑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기쁘다(일본인)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이 고맙다. 동북을 위해 계속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함께 기억하며 기도를 계속해서 깨닫는 것이 있다.
-실제로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라 기억하고 생각한다.
-"아무것도 못한다."가 아니라" 가능한 것을 하자!"

Group B

[日韓関係について]

-江華島条約…不平等条約を結んだ。韓国の意見は全くなかった。
-韓国側の意見：韓国は弱い国だった。日清・日露戦争が行われた場所。力が残っていても、反対や要求を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今も、当時のことを思うと強国に対しての不満があると同時に、自国への不満（軍事的な弱さ）がある。
-いまだに､韓国人には日本を否定的に考えている人が多い｡サッカーでも､日本だけは負けたくない。
-国の政治と人を好く気持ちは別々。
　例）司祭は嫌いでも、信徒は好き。
　　北朝鮮との関係において、政治家同士はもめている。でも、国民はかわいそうだと思う。
-「あなたと私」の付き合いが必要になる。神の国を求めよう。
-日韓関係を認識したのは、メディアやW杯の共同開催くらいから。いい意味でも悪い意味でも認識したことによって、日韓関係が築かれていった。
-「多様性の一致」という言葉を便利に使いすぎているのでは…その一言ですべてが解決したように思ってしまう。前日に、梁牧師がおっしゃった､「狭い道に入りなさい。最後には幸せが待っている。」「多様性の一致」という言葉を便利に使いすぎることは、これにあてはまらない。広い道として、まとめてしまっている。

[いっしょに歩こう！プロジェクトのＤＶＤを見て]

-本当に心が痛む（韓国側）
↑そう思ってくれることがうれしい。（日本側）
覚えてもらい、祈ってもらえることがありがたい。東北のために祈り続けることが大切。
-一緒に覚え続け、祈り続けることで、何か気付けることがある。
-実際に何が出来るとかではなく、覚えて思い続ける。
-「何もできない。」ではなく､「何かできることをする！」

Group C

[한일 관계에 관해]

-켄사쿠 씨의 이야기를 듣고 국가주의&민족주의에 대해 생각했던 건 시대마다 배경에 맞게 기독교인이 살아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 어떻게 할까를 생각할 때 개회예배 때 유시경신부님이 말씀하신 '어느 시점에서 세상을 보는가에 따라 입장이 바뀐다'는 신학, 신앙의 입장에 서서 성서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로부터 이어온 관계가 한순간에 깨지지 않길 바란다. 서로를 돕고 주님을 믿고 주님만을 따라갔으면 한다. 서로의 역사를 알아가며 좋은 관계 속에서 서로를 사랑했으면 한다.

-국가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안에는 아직 화해를 이루지 못한 지점이 남아있다. 우리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며, 한국인과 일본인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며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 좋겠다. 국가를 넘어서 하느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번 이야기에 국가, 민족, 개인으로서의 여러 입장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개인적으로는 사과하고 싶어도 민족으로서 용서받을 수 없을 때도 있고 국가로서 사죄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써 서로의 입장을 넘어서 새로운 관계를 구축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라에서의 보장, 권리와 국가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인다.(쓰나미, 방사능 이야기도 포함해서).

-양국의 생각의 깊이를 느낀다.

-젊은이는 미래를 보려고 하고 있다. 반성하는 마음도 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해야 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기도를 계속해야 한다. 만날 수 있어서 반가웠다.

[한일 관계에 관한 기도집]

-주여, 과거부터 계속되는 관계를 순식간에 부수지 마소서. 서로의 역사를 알고 좋은 관계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여, 우리는 국가가 다르다고 서로 미워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사이에는 아직 화해할 수 없는 응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국가를 넘어 하느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여, 옛날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함께 세상을 지키면서 후쿠시마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소서.

Group C

【日韓関係について】

-健作さんの話を聞いて国家主義､民族主義について考えたことは時代時代の背景に合わせてキリスト教徒が生きてきたということだ。だが、今はそういうのを越えなければ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る。それではどのようにするのかを考えたとき、開会礼拝の時に柳時京司祭がおっしゃった「どの視点で世界を見るのかによって立場が変わる」という神学、信仰の立場に立ち、聖書から学ば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だ。

-過去から受け継いできた関係が一瞬にして壊れないように願う｡お互いを助けて神様を信じて神様だけについて行けば良いと思う｡お互いの歴史を知って､良い関係の中でお互いを愛すれば良いと思う。

-国家が違うという理由で互いに憎まなかったら良いと思う。 私たちの中にはまだ和解を果たせていない部分が残っている。私たちが平和を成し遂げることができる容器が必要であり、韓国人、日本人である以前に私たちがキリスト者であることを覚え、互いに尊敬できればと思う。国家を越えて神様の国を成し遂げて行けると良いと考える。

-今回の話に国家、民族、個人としての色々な立場があるということを感じた。個人的には謝りたくても民族として許し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時もあり、国家として謝罪しない時もあって、キリスト人としてお互いの立場を越えて新しい関係を構築することができると良いと思う。

-国からの保障、権利と国家の話であるように思える（津波や放射能の話も含め)。

-両国の思いの深さを感じる。

-若者は未来を見ようとしている。反省する思いもある。次世代の為にしなくてはならない。私たちは1人じゃない。

-祈り続けないといけない。出会えてよかった。

【日韓関係について　お祈り集】

-主よ、過去から引き続いている関係を一瞬で壊さないでください。互いの歴史を知り、良い関係において互いに愛することが出来ますように。

-主よ、私たちは国家が違うことで憎しみ合うことのないように、私たちの中には、未だ和解できないわだかまりがあります。私たちが平和を実現することが出来るように勇気を与えてください。国家を超えて神の国に至ることが出来るよう導いてください。

-主よ、昔日本と韓国の間で、多くの葛藤がありましたが、同じキリスト者として、主の子供として、私たちがともに世を守りながら福島の痛みを繰り返すことのないよう導いてください。

2013년 한일성공회청년세미나 기도문

개회예배 본기도

창조주 하느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를 돌보라 명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어 어리석은 욕심으로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창조질서를 보전하며 핵을 넘어 인간과 모든 피조물이 평화롭게 공존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폐회예배 본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지상의 모든 사물을 관리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주님의 창조 사업의 동역자로 삼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자연 자원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경외심을 주시어, 자원 남용으로 인하여 고통 받는 자가 없게 하시고, 모든 환경파괴 특별히 핵 문제가 사라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각 그룹 작성 기도문 (세미나 폐회예배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에서 드렸음)

1. 원전에 관해서

Group A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시고, 보호하고 돌보라 하셨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만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리고 편의를 위해 다른 생명들과 자연을 아프게 하고 우리 자신들의 생존 또한 위협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비오니, 우리가 주님 창조의 목적과 그 의미를 깨달아 그릇된 욕망을 줄이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다른 생명들과 공존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절제, 용기를 주소서. **아멘.**

Group B

하느님,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생명과 생태계, 핵 에너지에 대하여 함께 배우고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원자력 에너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을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께서 주신 창조물을 지키도록 노력하오니, 말로써가 아니라 작은 한걸음이라도 내 딛을 수 있도록 주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지금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생활에 익숙해져 있지만 그러한 낭비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갖도록 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roup C

주님, 저희는 주님의 피조물으로서 스스로를 망가뜨리며 살아 왔었습니다. 저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주를 생각하고 겸손하게 삶으로써 우리들의 잘못을 뛰어넘게 해 주소서. **아멘.**

2013年 日韓聖公会青年セミナー祈祷文

開会礼拝特祷

創造主なる神よ、この世界を創造され、私たちにこれを保護するようにお命じになられました。どうか、私たちに知恵をお与え下さり、愚かな欲で自然と環境を破壊せず、主の創造秩序を保全し、核を越えて、人間とすべての被造物が平和に共存す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私たちの主、イエス・キリストのみ名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アーメン。**

閉会礼拝特祷

全能の神よ、地上のあらゆるものを管理されることで、私たちを創造の働きに共に参与する者となさいました。どうか、私たちに自然資源を正しく使用できる知恵とあなたを敬う心を与え、資源の乱用によって苦痛を受けるものがないようにして、すべての環境破壊、特に核問題がなくな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私たちの主、イエス キリストのみ名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 **アーメン。**

各グループ作成祈祷文（セミナー閉会礼拝代祷の中で捧げたもの）

１． 原発に関して

Group A

すべてをつくられた神さま、いま、原子力によって痛みを負っているすべてのいのちを覚えて祈ります。わたしたちの生活は、これらのいのちの上になりたっています。どうかわたしたちがこのことを忘れず、いのちを守るための行動を祈りとともに行なっ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お導きください。アーメン。

Group B

神様、私たちをここに集め、いのちや生態系・核エネルギーのことについて、共に学び、共に分かち合う時を与えてくださったことを感謝いたします。神様、私たちは、原子力・核エネルギーに対して、関心をもってこなかったことを懺悔します。神様に与えられた創造物を守ることに努めます。言葉だけではなく、小さくても一歩を踏み出させてください。エネルギーを浪費する生活に慣れてしまっていますが、そこから抜け出す勇気をお与えください。主イエスキリストのみ名によって　**アーメン。**

Group C

主よ、私たちは神様の被造物でありながら、自らを壊して生きていました。私どもの過ちを許して下さって､私たちが主を考え､謙虚に生きることによって私たちの過ちを跳び越えるようにして下さい。**アーメン。**

2. 한일 관계에 관해서

Group A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우리들이 이 세미나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서로 다른 역사인식을 갖고 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며 자신과 한 사람, 한 사람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리고 서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평화를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Group B

하느님, 저희들은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에 대하여 용서를 구합니다. 나라라는 벽을 넘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볼 수 있는 관계로 서로를 이해하기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주님 부디 주님에게 축복 받은 저희들이 다시 일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까운 나라에 있는 우리가 항상 서로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걸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roup C

주여, 우리들은 미래를 위해서 살기 전에 과거의 아픔을 마주보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인것을 기억하고 국적을 넘어서 서로를 존경할 수 있도록 해 주소서. **아멘.**

２．　日韓関係に関して

Group A

わたしたちを愛してくださる神さま、わたしたちがこのセミナーで顔を合わせて話し合えたことを感謝いたします。その中で、わたしたちは異なった歴史認識を持っていることを確認しました。どうか、お互いに相手の痛みを理解しようという努力をし、一人ひとりが持つ弱さを認め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そして、お互いに尊敬する心をもって、平和のために祈り続け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お導きください。**アーメン。**

Group B

神様、私たちはお互いの声を正しく理解しようとしていなかったことを懺悔します。国という壁を越えて、一人一人顔の見える関係で理解しようと努めます。どうぞ、神様の祝福によって一緒に歩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また、お互いを覚えつづけさせて、神のみ国に向かって一緒に歩いていけますようにお導きください。主イエスキリストのみ名によって　**アーメン。**

Group C

主よ、私たちは未来のために生きる前に、過去の痛みに向き合い、わだかまりを知らなくてはなりません。そして、私たちがキリスト者であることを覚え、国籍を超えて互いに尊敬することが出来ますように。**アーメン。**

세미나 참가자 감상문

<문지현>

2년간의 공백을 깨고 다시금 개최된 한일 성공회 청년 세미나. 2013년, 올해의 주제는 '핵을 넘어 생명의 세상으로(行こう、核を越えていのちの世界へ)' 이었다.

2011년 3월 14일. 월요일 첫 수업부터 울면서 들어오시는 '교수님'과 그 모습을 보고 당황할 수 밖에 없던 '나'. 일본에서 유학할 때에 자신이 걷던 길거리가 물에 잠기고, 자신을 돌봐주셨던 일본인 교수님과 연락이 닿지 않아 너무나도 슬피 울던 그 얼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그 슬픈 마음을 추스를 시간도 없이 원전 사고가 연속해서 일어났고, 아무래도 일본어 과이다 보니 다른 과 학생들보다는 좀 더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 같다.

아무튼 나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한 '핵'이라는 주제로 사전 모임이 시작되었다. 그 동안 '일본 방사능'이란 키워드에는 귀를 쫑긋하면서, 정작 한국의 원전에 대해선 생각해 보지 않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 볼 수 있었다. 왜 핵이 존재하는 지, 왜 그 핵을 없애야 하는 지에 대해 처음 생각해 보게 된 시간이었다.

2013년 8월 12일. 뭐라 첫인사를 건넸는지 조차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긴장했던 세미나 첫날. 각각의 다른 언어로 동시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에게 있어 정말 새롭고 신선한 기분이었다. 언어는 다르지만 함께 노래를 부르고, 간단한 게임을 통해 어색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다음 날, 원자력을 홍보하는 곳에 아이러니하게도 원전을 반대하는 우리들이 찾아가 홍보관 측의 설명을 듣고, 원자력이 안전하다고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녹색성장이라 부르며 국민들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너무나도 평화로워 보였던 고리 발전소에서 사고가 난다면 후쿠시마 이상의 피해를 얻게 된다는 환경연대의 설명도 충격적이었다. 이후 강연에서 교회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을 보며 못 한다고 하기 전에 사소한 행동 하나라도 실천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느꼈다.

이번 세미나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잇쇼니 아루꼬 프로젝트(いっしょに**歩**こう!プロジェクト)' 였다. 사고 당시 겪었던 일들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는 흔치도 않거니와 그 동안 잘 알지 못했기에 더 마음 속에 남아있는 것 같다. 아마 많은 한국 사람들은 일본이 그와 같은 일을 겪었으리라곤 상상도 하지 못 할 것이다.

이른 아침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늦은 저녁 예배로 하루를 마감하는 빡빡한 스케줄 덕분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교류를 할 수 있었다. 일상으로 돌아와 세미나 기간 동안 내가 보고 느낀 것들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먼저 관심을 보여줬다. 그 중에서도 내가 빼먹지 않고 꼭 해주는 이야기는 '많은 일본인들이 원전 사고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과 '귀 없는 토끼 이야기'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무조건적인 원망에서 벗어나 우리가 겪지 못한 아픔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았다.이런 이야기들을 직접 들을 수 있던 것에, 나아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에, 또 성공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너무나도 멋진 사람들과 만날 수 있던 것에 정말 감사하다.

앞으로도 함께 걸어요! (これからもいっしょに歩**きましょう！)**

-앞으로의 과제-

한국 참가자의 의견은 스텝 분들에게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만, 일본 참가자의 의견은 잘 반영되었는지, 우리의 배려가 충분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다음 번 세미나에 보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서른 명에 가까운 인원이 경주에서 움직이기엔 한국 측 스텝 수가 부족했던 점도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 번에는 스텝의 인원 충당과 함께 타임키퍼(Time keeper)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セミナー参加者感想文

<문지현>(ムン・ジヒョン)

2年の空白を破って再び開催された日韓聖公会青年セミナー。2013年、今年のテーマは「ゆこう、核を越えていのちの世界へ（핵을 넘어 생명의 세상으로)」だった。

2011年3月14日月曜日。 大学に入って始めての授業で私が見たのは先生の泣き顔だった。日本で留学した時に歩いた町が水に浸かり、お世話になった日本人の先生と連絡が取れず、あまりにも悲しくて泣いてしまったその顔を今も忘れられない。その悲しい心を癒やす時間もなく、続いて原発事故が起こり、何と言っても（専攻が）日本語学科だったため、他の学科の学生よりもっと敏感に反応した。

とにかく私を含めて多くの人々の心を重くした「核」というテーマで事前学習会が始まった。今まで「日本の放射能」と言うキーワードにはパッと耳を傾けたのに、いざ実際の韓国の原発に対しては考えて見なかった私たちの姿を振り返ることができた。なぜ「核」が存在しているのか、なぜその「核」をなくすべきかについて初めて考えさせられる時間だった。

2013年8月12日。何と挨拶を交わしたのかも覚えていないほど緊張していたセミナーの初日。それぞれの言語で同時に礼拝をささげることは私にとってとても新しくて新鮮な感じだった。言語は異なるが一緒に歌を歌って、簡単なゲームを通してぎこちなさを解くことができる貴重な時間だった。

翌日、原子力を広報するところへ皮肉にも原発に反対する私たちが訪ねて広報館側の説明を聞き、原子力が安全だとは誰も壮語することはできないにもかかわらず「何で政府はグリーン成長と呼びながら国民を危険に晒しているんだろう」と思った。あまりにも平和に見えた古里発電所で事故が起きたら福島以上の被害を被るという環境連帯の説明も衝撃的だった。その後講演で「教会で実践できる省エネ」を見て「できない！」と言う前に些細なことでも実践しようとする姿勢が重要であると感じた。

今回のセミナーで最も印象的だったのは「いっしょに歩こう！プロジェクト」だった。事故当時に経験したことを直接聞く機会は珍しいし、今までよく知れなかったので一層心に残っている。おそらく、多くの韓国人は日本がそのような経験をしたということを想像も出来ないだろう。

朝早く礼拝で一日を始めて、夜遅く礼拝で一日を終えるタイトなスケジュールのおかげで（？）短い時間内に多くの交流をすることができた。日常に戻ってセミナーの間、私が見て感じたことをどのように伝えればいいのか悩みが多かったが、思ったより多くの人たちが関心を見せてくれた。その中で私が彼らに必ず話すことは「多くの日本人が原発事故の責任を感じている」ことと「耳のないウサギの話」だ。その話を聞いて「自分たち（韓国）こそ放射能の被害者」だという一方的な恨みの意識から抜け出して、経験したことのない、その痛みを理解しようとする人々の反応を見た。

このような話を直接聞くことができて、それを韓国の皆と共に分かち合うことができて、また聖公会という垣根の中でとっても素晴らしい人々と出会えたことに本当に感謝している。**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これからもいっしょに歩きましょう！(앞으로도 함께 걸어요!)

ー今後の課題ー

韓国の参加者の意見はスタッフの方によく配信されたと思いますが、日本の参加者の意見はよく反映されたのか、私たちの配慮が十分だったのかを検討して次回のセミナーに活かすことができれば良いと思います。
そして三十人に達する人員が慶州で移動するのに韓国側のスタッフの数が足りなかったのが少し残念でした。
次回は、スタッフの人員充当とともにタイムキーパー（Time keeper）がいればもっと良いと思います。

이번 세미나가 한일 양국에게 유익 했는지, 또 성공회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 생각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러한 교류가 지속 가능하도록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로 남겨놓아 다음 기수에게 피드백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내년에도 참가 할 수 있다면 그때는 준비단계에서부터 함께 계획하고 움직일 수 있는 능동적인 참가자가 되고 싶습니다^^!

＜김민훈＞

정말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에 대한 저의 생각이 180도 바뀐 계기였습니다. 항상 막연한 선입견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식민지배 했던 나라, 아직도 전후 책임을 회피하는 나라, 우익정권이 다시금 동북아의 패권을 노리는 나라.. 반일 감정이 저안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개개인들은 저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로운 역사인식과 과거에 대한 성찰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분들은 그랬습니다.

아직 내안의 갈등과 경계심을 지울 순 없지만 새로운 생각을 가져봅니다. 함께 나아갈 수 있겠구나,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겠구나, 과거사에 대한 새로운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겠구나..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교류하고 싶습니다.

원자력 문제 또한 일본의 후쿠시마 사태와 후 처리과정을 통해 그 위험성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게 해주었습니다. 일본인들의 아픔을 통해 우리나라 원전의 위험성을 알게 해준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의 희생자들과 고통을 당한 분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하며 한국의 원전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해 준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또다시 아니 반드시 참석하겠습니다. 나의 친구들, 우리 다시 만나서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누어요.

＜장기환＞

이번이 한일 성공회 청년 세미나 참석이 처음인데, 한일 청소년들이 모인다는 얘기만 듣고 참석 신청을 했는데 주제가 반핵, 반전이라는 얘기를 듣고 참석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내 자신으로서는 그동안 생각해 보지 못했던 주제였습니다.

막상 참석해서 다들 모여보니 스탭분들을 제외하고는 참석자 중에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서 내가 참석해도 되는지 하는 의문이 또 들었구요. 그래서 일본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힘들었고, 한국 친구들 대부분은 신대원 후배들이라 이틀밤 내내 조용히 잠만 잤습니다.

첫날 원전을 다녀오고 양재성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조별 모임을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처럼 대체 에너지가 없고, 풍력, 수력, 태양력 발전도 못하는 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원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꺼내다 보니 약간의 의견 충돌도 있었는 것 같구요. 그러나 그후 후쿠시마 사태를 보고 나니 원전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전기를 아껴 쓰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켄사쿠군의 강연을 듣고서는 한일 관계가 양 나라의 우경화된 분들 때문에 관계가 계속 악화되는 것이지, 대다수 국민들은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일본 참가자분들의 말을 듣고 수긍이 갔습니다.

경주에서 누나가 학교에 나가고 그래서 경주에 있는 맛집을 참가자들 모두 같이 가서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흐뭇한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참가자분들과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미나에도 참석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참석한다면 여러 분들과의 대화를 통해 서로간의 관심사가 뭐고,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뭔지 서로 나누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이번 모임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모든 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今回のセミナーが日韓両国に有益だったのか、また聖公会にとってはどんな意味だったのかについて、意見を分かち合うことができれば、と思います。このような交流が継続して出来るように誰でも閲覧できる資料を残して次の旗手にフィードバックするシステムが必要だと思います。

もし私が来年も参加することができたらその時は準備の段階から一緒に計画して動くことができる積極的な参加者になりたいです！(笑)

<김민훈>（キム・ミンフン）

本当に充ち足りた時間でした。何より日本に対する私の考えが180度変わった契機になりました。常に漠然とした先入観と恐れがありました。韓国を植民支配した国、未だに戦争責任を避ける国、右翼政権が今一度東北アジアの覇権を狙う国…。反日感情が私の中に深々と位置していました。しかし、（今回のセミナーを通して）日本の一人一人はそれぞれ他の考えを有している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した。新しい歴史認識と過去に対する省察がありました。少なくとも今回のセミナーに参加した方々はそうでした。

まだ自分の中の葛藤と警戒心を消すことはできませんが、新しい考えを持ってみます。共に進むことができるだろう、互いに助け合うことができる友達にな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過去の歴史に対する新しい合意点を探すことができるだろう.. 持続的に対話し、交流したいです。

原子力問題もまた、日本の福島事故と後の処理過程を通して、その危険性に対する問題を認識するようにしてくれました。日本の人たちの痛みを通して韓国の原子力発電所の危険性を分かるようにしてくれました。福島原子力発電所爆発による犠牲者の方々と苦しみに遭われた方々に深い哀悼の意を表し、韓国の原子力発電所に対する問題点を指摘してくださったことを深く感謝申し上げます。

来年にまた、いや必ず参加します。友達のみなさん、また会って、今度はまた別の話を分かち合いましょう。

<장기환>（チャン・ギファン）

今回、日韓聖公会青年セミナー出席は初めてだったのですが、日韓の青少年が集まるという話だけを聞いて出席申請をしたが主題が反核、反原発いう話を聞いて参加しようかやめようか悩みました。自分自身としてはこれまで考えてこなかった主題でした。

実際に参加してみると、スタッフの方々を除いては参加者の中では私が年齢が一番高く、私が参加してもかまわないのかという疑問がまた浮かびました。それで日本の友達と仲良くなることも大変だったし、韓国の友達の多くは神学生の後輩たちでしたので二日夜ずっと静かに寝むっていました。

初日、原子力発電所に行って来て梁在成牧師様の講義を聞いた後、グループの分かち合いをした時に、まだ韓国のように代替エネルギーがなくて、風力、水力、太陽力発電もできない国では今のところは原子力発電所が必要だという話を述べてみると、若干の意見衝突もありました。しかしその後、福島の事故（のビデオ等）を見て、原子力発電所を減らすためには私たち皆が電気を節約しながら使えば、減らすことができ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という気がしました。

健作君の講演を聞いた後に、日韓関係が両国の右傾化した人たちのために関係が継続して悪化しているのであって、大多数の国民は日韓関係が悪化するのを望まないということを日本参加者の方々の話を聞いて、その通りだと思いました。

慶州で姉が学校に勤めており、それで慶州にある美味しい店に参加者皆で一緒に行って、おいしく食べる姿を見てほほえましい思いが湧きながら、その時から参加者の方々と親しくなるきっかけになりました。

次のセミナーにも参加することができるかは分からないが、次に参加するならば皆さんとの対話を通して、お互いの関心事が何で、持っている考えがどんなものか、互いに分かちあう機会になったら良いと思います。今回の集いを準備するのに苦労されたすべての方々に感謝を申し上げます。

＜金山将司＞（카나야마　마사시）

내가 한일 세미나에서 배운 것, 느낀 것은 3개 정도 있습니다. 첫번째는 한국 사람과 처음으로 말한 것에서 한국이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이런 교류를 갖게 된 것은 저에게 미지의 나라이자 민족이었던 한국을 조금이지만 이해하고 배우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정말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원전에 관해서 많이 인식 차이가 있을까라는 인상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자신에게 정말 흥미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원전 선진국이라는 것을 들었고, 또 원전 사고가 있었던 일본의 후쿠시마와 가장 물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러니 원자력에 대한 이해는, 후쿠시마에서의 피해라고 할 수 있는 마이너스 면과 나날의 생활에 깊게 관련되는 에너지라는 긍정적인 면을 많이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참가자의 이야기를 듣고, 월성 등의 원자력 발전소의 자료관이나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원자력에 관해서 원전 사고전의 일본과 별로 다를 바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원전의 피해로 집을 잃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만, 방사능 탓에 고향의 산나물이나 낚시를 한 물고기는 못 먹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무엇이 고향의 그리운 맛을 빼앗는 일이 지금도 내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감각을 이번 세미나에서 조금이나마 공유했더라면 행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는 한국 쪽의 환대함에 너무 감동했다는 것입니다. 불과 일주일 미만의 세미나였지만, 한국 사람들에게 너무 신세를 졌습니다. 한국어를 모르는 나에게도 배운 일본어나 영어, 스마트폰의 기능으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내와 세세한 점에서 정말 잘해 주셔서 처음으로 한국에서 충실한 체류가 된 것은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어학은 잘못하지만 한국어, 꼭 노력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저의 이번 세미나에 관한 감상입니다.

<松村希>(마츠무라 노조미)

처음으로 간 한국 처음인 한일 청년 세미나, 처음에는 긴장했다. 일본에서 나의 주위에서는 "당연한" 감각과 얼마나 다른것일까라는 긴장도 있었다. 그리고 역시 달랐다. 그룹 토론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화제로 했을 때는 같은 성공회 청년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답답했다. 그러나 서로 다르니까 왜 그렇게 생각할까, 어디가 똑같은가 어디가 다른건가를 한참을 생각했다. 상대방과 행복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머리와 마음을 쓰고 그것은 꽤 힘들지만 충분한 행위라고 생각했다. 처음으로 체감했다.

이를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세미나 가운데 들었던 "사랑은 사람을 잇는 정. 자신이 갖고 있는 시간이나 마음을 얼마나 상대에게 바칠수있는지?"라는 말대로 시간을 두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관계가 세미나 안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일본에 있으면서 한국의 청년과 만나는 기회는 몇번 있었지만 그 어떤 것과도 다른 체험이었다. 이 만남은 나의 재산이고 더 많은 청년들이 체험해 봤으면 한다고 절실히 생각한다.

또 한가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싶은 것은 "배우는" 것. 국가 차원의 한일 관계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한국청년에게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국민들이 품고 있는 "두려움"를 상상 할 수 있냐고, 그런 단어가 나올줄은 생각할 수 없었다. 그것을 듣고 자신의 공부부족을 한심스럽게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오히려 여러 것들에 대해 배워야겠다고 느꼈다. 여러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무엇이 그 아픔의 뿌리인것일까. 원자력 발전소, 핵을 둘러싼 현상태를 생각할 때 어려움이 무엇이며, 희망은 무엇일까? 카토 히로미치 동북교구주교가 잊지 말라고 말했던 "상상력"을 움직일 때 내 안에 그 기반이 되는 지식이 없으면 안되는 것을 통감했다.

마지막으로 같이 걷자! 프로젝트의 보고시간을 주신 것에 감사. 참가자 개개인과 "동일본 대지진"와의 거리감이 조금이라도 변화했다면 기쁘다.

＜金山将司＞

私が日韓セミナーで学んだこと、感じたことは、3点ほどあります。一つは韓国の人と初めて話したことから、韓国がより身近に感じることができたことです。今回のセミナーでこのような交流を持てたことは、私にとって未知の国であり、民族であった韓国を少ないながら理解し、学ぶための第一歩として本当にいい経験になりました。

２つは原発に関してかなり認識の差があるのだろうかという印象をうけたことです。これは自身にとって大変興味深いことでも有ります。韓国は原発の先進国ということを聞いていたし、また原発事故のあった日本の福島ともっとも物理的に近い国であります。ですので原子力に対する理解は、福島からの被害というマイナスの面と、日々の生活に深く関わるエネルギーというプラスの面をかなり認識していると思っていました。しかし実際に参加者の話を聞いたり、月城などの原子力発電所の資料館や、活動家の皆さんのお話を聞いて原子力に関して、原発事故前の日本とあまり大差はないのかもしれないと思いました。私自身原発の被害として家を失ったりし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が、放射能のせいで故郷の山菜や、釣りをした川の魚は食べられなくなり、目に見えない得体のしれない何かが故郷の懐かしい味を奪ってしまうという出来事が今でも私の中に刻まれています。この得体のしれないものに対する感覚を今回のセミナーで少しでも共有できたのなら幸いだと思います。

３つは韓国の方のホスピタリティにとても感動したということです。わずか1周間足らずのセミナーでしたが、韓国の皆さんにはとてもお世話になりました。韓国語のわからない私にも習われた日本語や英語、スマートフォンの機能で積極的に話を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案内や細かな点で本当に良くしていただいて、初めての韓国でここまで充実した滞在ができたことは本当にありがたく思います。私も語学は苦手ですが、韓国語、ぜひとも頑張ってみようと思います。

以上が私の今回のセミナーに関する感想です。

＜松村希＞

初めての韓国、初めての日韓青年セミナー、最初は緊張した。日本で私のまわりだと「当たり前」な感覚とどれほど違うだろう、という緊張もあった。そして、やっぱり違った。グループ討論で原子力発電のありかたを話題にしたときなどは、同じ聖公会に連なる青年同士であるからこそ、なおさら歯がゆかった。しかし、お互いに違うから、なんでそう考えるんだろう、どこが同じだろう、どこが違うだろう、とすごく考えた。相手とハッピーな関係であるために頭と心を使う、これはかなり疲れるけれどとても豊かな行為だと思った。初めて体感した。

これを豊かだと思えたのは、セミナー中に聞いた「愛は、人をつなぐ絆。自分が持っている時間や心をどれだけ相手に捧げられるか」という言葉通り、時間をかけて心を尽くして愛のある関係がセミナーの中で作られたからだと思う。今まで日本にいて韓国の青年と出会う機会は何回かあったけど、そのどれとも違う体験ができた。この出会いは私の財産であるし、もっと多くの青年に体験してほしい、と切実に思う。

もう１つ、個人的に大切にしたいと思ったことは「学ぶ」こと。国としての日韓関係の話をしている時に韓国の青年から「恐れ」という言葉が出た。韓国という国、国民が抱いている「恐れ」を想像できるか、と。こんな言葉が出てくると思わなかった。これを聞いて、自分の勉強不足をふがいなく思った。そして、私はあらゆる事をもっと学ばないといけないと感じた。様々な「痛み」を持つ人に寄り添うとき、何がその痛みの根っこにあるのか。原子力発電所・核をとりまく現状を考えるとき、困難は何であって、希望は何であるのか。加藤博道東北教区主教が忘れるなと言っていた「想像力」を働かせる時、自分の中にその基盤となる知識がないといけないことを痛感した。

最後に。いっしょに歩こう！プロジェクトの報告に時間をいただけたことに感謝。参加者一人ひとりと、「東日本大震災」との距離感が少しでも変化していたら嬉しい。

다른 것, 만남, 배우는 것. 그것의 소중함을 사무치게 느낀 5일이었다.
이 세미나를 위해 일해 주신 여러분과, 우리를 지켜주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小林玲子＞（코바야시 레이코）
세미나에서 강하게 남아있는 장면
·기도문을 생각할 때, 나눈 것을 모두가 돌아보며 빌고 싶은 항목을 함께 생각했던것. 그룹 토의의 전반은 역사 인식의 차이를 이야기하였고, 아픔도 있었다. 대도를 글로 정리하는 작업에서 시간 관계상 언어 때문에 한국과 일본으로 나뉘어 논의하고, 다음에 그것을 하나로 합쳐 할 때에 , 한국분이 말한 "기도문의 정리는 맡기겠다. 우리들은 팀이니까"라는 말. 매우 기쁘고 생각나서 눈물이 나옵니다. 나누고 같은 기도를 바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세미나 처음에는 일본인과 거의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말했던 두 분이 마지막에 일본에 가보고 싶다고 말해 주신 것.
·노래, 옷, 일본측에서 상연물을 준비할 때, 이렇게 하면 한국청년이 기뻐하지 않을까?라는 여러분의 생각이 모인 것. 한국의 모든분들과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
·한국의 민족의상을 입혀 준 나를 한국의 형제자매가 기꺼이 기뻐해 주신 것. 또 일본의 유카타를 입은 것을 "예쁘다"라고 말해주고, 기꺼이 입어 주신 그녀들.
·마지막 밤, 모두 원으로 앉아 각각의 생각을 나눈 후에 손을 잡고 주 기도를 드렸을 때. 하느님께서 원하는 것은 평화이고, 저의 작은 생각과 두려움, 의심을 넘고 있는 하느님의 사랑을 생각했다. "주님의 평화"라는 의미를 처음으로 알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잡은 손이 따뜻했다.

＜上原成和＞（우에하라 세이와）
정말 순식간에 5일이었다. 한국, 일본 각지에서 함께 모여서 서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이 놀고 정말 즐거웠다. 원전에 대해, 한일관계에 대해, 또 그 이외에도 여러 것들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게 되어 정말 좋았다. 아직도 모르는 것, 알아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느꼈다. 또 알 뿐 아니라 뭔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실행할 것도 중요하다고 느꼈다. 앞으로도 한국, 일본의 청년들이 함께 기도하고, 서로 기억하고, 도와주는 관계를 계속했으면 한다. 참가해 주신 여러분과 또 이번 세미나를 여러 방법으로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내년에도 꼭 참석한다. 여러분도 또 함께 참가합시다!

<大隅彩恵子>(오오스미 사에코)
▪이번에 처음으로 한일 청년 세미나에 참여하게 돼서 매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감동한 것은 언어는 달라도 같이 성찬식을 바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회의 강점이라고 느꼈습니다. 나라와 민족, 언어 등 모든게 달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같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을(한국의 경우 시차가 없어서 특히)매주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감개무량 했습니다. 일본에서 주일 예배에 갈 때는 세계 각국에서 바쳐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원자력 발전소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3.11이라는 슬픈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원전에 관심을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원전이 공원 옆이나 해수욕장 근처에 있던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원전이 있는것이 일상의 당연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보통처럼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파라솔이 펴져 있고, 낚시를 하거나, 시원한 바람을 쐬는 사람이 있었다. 일본은 지금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곳의 바다는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違うこと、出会うこと、学ぶこと。それらの大切さをひしひしと感じた５日間だった。
このセミナーのために働いてくださった皆さんと、私達を守り、導いてくださった神様に感謝！

〈小林玲子〉
セミナーで強く残っている場面
・代祷を考える時、分かち合ったことを皆で振り返りながら、祈りたい項目をいっしょに挙げていったこと。グループ討議の前半は、歴史認識の違いを言い合い、痛みもあった。代祷を文にまとめる作業で、時間の関係から、言葉のため韓国と日本に分かれて話し合い、次にそれを合わせて一つにしようという時に、韓国の方が言われた「祈祷文をまとめることは任せる。わたしたちはチームだから」という言葉。本当に嬉しく、思い出して涙が出ます。分かち合い、同じ祈りを捧げられたことを感謝します。
・セミナーの最初に日本人とほとんど話したことはない、と言われていたお２人が、最後に日本に行ってみたいと言ってくださったこと。
・歌、着物の日本側の出し物をするのに、こうしたら韓国の青年が喜ぶのではないか、という皆の思いが集まったこと。韓国の皆とも声を合わせて歌うことができたこと。
・韓国の民族衣装を着せてもらった私を、韓国の兄弟姉妹が喜んでくださったこと。また、日本のゆかたを着ているのを「きれい」と言って、喜んで着てくださった彼女たちのこと。
・最後の夜、皆で円に座ってそれぞれの思いを分かち合った後に、手をつないで主の祈りを唱えたとき。神さまの願っておられることは平和であって、私の小さな思いや恐れ、疑いを超えている神さまの慈しみを思った。「主の平和」の意味に初めて気付かされる思いがした。つないだ手があたたかかった。

＜上原成和＞
本当にあっという間の5日間だった。韓国、日本の各地から共に集まり、お互いたくさん話して、たくさん遊んで、本当に楽しかった。原発の事、日韓関係のこと、また他にも色んなことを分かち合うことが出来て本当に良かったと思う。まだまだ知らないこと、知らないといけないことがたくさんあると感じた。また、知るだけでなく、何か自分が出来ることを考え、実行していくことも大切だと感じた。これからも韓国、日本の青年たちが共に祈りあう、覚え合う、助け合う関係を続けていけたらと思う。参加してくださった皆さん、また今回のセミナーを色んな形で支えてくださった全ての方々に心から感謝します。来年も参加します。みなさんもまた一緒に参加しましょう！

〈大隅彩恵子〉
・今回、初めての日韓青年セミナーに参加させていただいて、非常に良かったと思っています。一番感動したのは、言葉は違っても同じように聖餐式を捧げられたことです。これが、聖公会の強みだと感じました。国や民族、言葉などすべてが違っていても、神様の前では同じなのだと確信しました。そして、この聖餐式を（韓国の場合は時差がないので特に）毎週同じ日、同じ時間帯に行っているのだと考えると、感慨深いものがありました。日本で主日の礼拝に出るときは、世界各国で捧げられていることを考えながら過ご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した。
・私は、原子力発電所を見たのは今回が初めてでした。３．１１という悲しい出来事が起きなければ、原発に興味を抱くことはなかったと思います。原発は、普通に公園の隣やビーチの奥にあったのが、非常に印象的でした。原発があるのが日常の当たり前の風景になっていました。そんな中、普通に生活している人がいるのだと感じました。普通に、パラソルが指してあって、釣りをしていたり、涼んだりしている人がいる。日本は今福島第一原発の汚染水が流れ出ていることが問題になっているので、

・양재성목사의 이야기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 가능한지를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그것을 지키는 역할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라는 문제와 상관없이 원전 자체를 반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양 목사의 이야기을 듣고 다시 한번 하느님의 위대함을 알고, 경외심이 깊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적어도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때에, 양 목사는 자신을 부정해서는 안 되다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자신을 부정하는 것은 나 자신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자신 있게 걸어가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이유 중 하나는, 한국청년의 본심을 듣고 싶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룹활동을 통해 그것이 이루어져서 충실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처음에 들었을 때에는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 많았습니다만, 그것은 개인의 부분도 있고 그러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했던 것도, 일본이 침략한 것도 바꿀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본이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은 일본이 많은 것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 그것을 아는 것, 생각하는 좋은 기회를 받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세미나에 참가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번이나 해외에 갈 기회는 있었지만, 여행이거나,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참가할 수 있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에는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교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교류를 깊게 해서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내가 한일청년세미나를 아는 사람으로서 일본의 청년에게 즐거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통역으로 되어 많은 것을 다음세대에 전하고, 앞으로도 한일청년세미나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永井啓> (나가이 케이)

직접 한국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통해 한국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해도 얻기 어려운 가까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치 등 서로 언쟁하는 양국이지만 우리들은 그것을 느끼지 않고 접할 수 있었다는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같은 성공회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언어는 다르지만 보여지고 있는 것이 똑같은 안도감이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청년과 친해져서, 한국어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한국, 일본의 청년, 스텝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윤지혜>

한일성공회청년세미나를 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에는 한국 청년들과 일본 청년들이 만나서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자리라고만 생각했었다. 그래서 아무 준비 없이 사전모임에 참가했었는데, '핵'이라고 하는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고 '괜히 참가한다고 했나..'라는 후회도 있었다. 핵이라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큰 관심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자료에는 너무 어려운 말뿐이었으며, 핵과 관련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멀리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상태에서 경주에 가는 날이 다가왔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침에 만나 가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곳에서는 어색함이 있었지만 초등학생 수준의 일본어 덕분에 조금이나마 어색함을 풀 수 있었던 것 같다.

이튿날 아무 생각 없이 월성과 고리의 원자력 발전소를 돌아보게 되었다. 고등학교 때 한국지

ここの海は大丈夫なのかと思いました。
・梁在成牧師の話を聞いて、キリスト者として何ができるのかを考えさせられました。全ては神様の創造物であり、それを守る役割が私たちにあることを知りました。私は、キリスト者がどうとかではなく、原発自体に反対だ、と考えていました。しかし、梁牧師の話を聞いて、改めて神の偉大さを知り、畏れが増しました。キリスト者として、出来ることが小さくても何か行動することに意味があるのだと考えました。
・その際に、梁牧師は、自分を否定してはいけないこともおっしゃいました。自分自身を否定することは、私自身を造って下さった神様をも否定することになるのだと教えて頂きました。だから、私は私に自信をもって歩んでいこうと決めました。
・今回、このセミナーに参加した理由の一つに、韓国の青年の本音を聞きたい、というのがありました。グループ活動を通して、それが叶い、充実した時間をもつことが出来ました。なぜ、そのようなことを言うのか。なぜ、そのような考え方なのか。最初に聞いた時には腑に落ちないようなことが多くありましたが、それは個人の部分もあれば、そうでない部分もあると気付かされました。戦争をしていたことも、日本が侵略していたことも変えようのない事実で、それを日本が先に認める必要がある、と考えました。まずは、日本が多くのことを認め、反省しなければいけない。それを知ること、考える良い機会を与えてもらったと感じています。
・最後に、本当に今回のセミナーに参加できてよかったと思っています。何度か海外に行く機会はあったものの、旅行でだったり、学生としてだったりしたので、今回キリスト者として参加できたことに大きな意味があると思います。世界には多くの若いキリスト者がいて、交流をもてた。今後も、今回の交流を深められるようにしていけたらと思っています。また、私が日韓青年セミナーを知っている者として、日本の青年に楽しさを伝え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私が通訳となって、多くのことを次の世代に伝え、今後も日韓青年セミナーが続いていけるように何かしていこうと思いました。

＜永井啓＞

直接韓国の人と触れ合うことで、韓国のことをどれだけ勉強しても得られないであろう近さを感じられました。

政治などでいがみ合う両国ですが、国民同士でそれを感じること無く接することが出来たのは、本当に良かったです。

同じ聖公会に属する者通し、言葉は違えど見えているものが同じなんだという安堵感が、とても心地よかったです。

今回を期に、青年と仲良くなり、韓国語を勉強する事になりました。
本当に楽しい旅でした。韓国、日本の青年、スタッフの皆さん、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윤지혜（ユン　ジヒェ）

日韓聖公会青年セミナーをするという話を初めて聞いた時には、韓国の青年たちと日本の青年たちが出会い、共に遊ぶことができる場とだけ考えていた。それで何の準備もなしに事前会に参加したのだが、‘核’という難しい主題を持って話すということを知って「考えなしにむやみに参加すると言ってしまったのだろうか」という後悔もあった。核というものが私にとって大きな関心事でなかっただけでなく、資料にはとても難しい話があるだけで、核と関連して被害をこうむった人たちの話があまりにも遠く感じられたためだった。そういう中で慶州に行く日が近づき、当日の朝、よく知らない人たちと一緒に行くことになった。紆余曲折の末、到着したところではぎこちなさがあったが、小学生水準の日本語のおかげで少しではあるが、そのぎこちなさを解くことができたようだ。

翌日、何の考えもなしに、月城と古里の原子力発電所を見て回ることになった。高校の時、韓国の地理を習う

리를 배울 때 많이 등장했던 지역이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괜히 떨렸다. 각각의 홍보관은 너무나도 예쁘게 전시되어 있었지만, 별로 읽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왜 내가 원자력이 돌아가는 원리를 알아야하는가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현재 한국의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인식과, 엄청난 비리들을 듣고 충격에 빠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울 정도였다. 제일 충격적이었던 이야기는 비상계획 구역 이내의 피난 연습이 없을뿐더러 그 지역의 소방관들이 너무 안심한 나머지 마약을 복용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아마 소방관들의 마약 복용에서 더욱 더 큰 충격을 먹은 듯했다. 저녁에 양재성 목사님의 강연을 듣고 원자력 자체의 위험성을 다시한번 느낄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동북아시아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화약고라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또한 원자력 없는 나라 덴마크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나라도 마음만 먹으면 핵없는 곳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동안 마음을 먹고 원자력을 없애려 하지 않은 사람들과, 이제 와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나 자신에게 실망했다.

셋째날에 한국과 일본의 그리스도교의 관계에 대한 켄사쿠씨의 강연은 너무 어려웠지만, 논짱이 진행한 잇쇼니아루코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는 몰래 울면서 봤다. 실제로 겪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서인지 마음이 더욱더 짠했다. 또한 한줄기의 희망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쉽게 포기할 줄 아는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경주에서 자유시간을 가지며 다같이 돌아다녔을 때에는 너무 좋았다. 마침 해도 지는 시기였어서 시원했고,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넷째날에 불국사와 석굴암을 갔다 왔을 때에도, 민속마을을 갔다왔을 때에도 많이 더워서 힘들긴 했지만, 그만큼 모두와 어울려다니며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저녁에 유카타를 입어본 것도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한국에 오기 전부터 열심히 준비해 준 일본측의 공연 또한 재밌게 봤다.

4박 5일동안 여러 곳에 다닌 것도 즐겁긴 했지만, 강연을 듣고나서, 이동을 하고 나서 조별로 모여서 원자력 발전소와, 한일 상황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각 조별로 기도문을 만들 기회가 있던 것 또한 신선한 경험이어서 좋았다. 한 여름밤에 꾼 꿈인 것처럼 4박5일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서 아쉬울 따름이다. 다음에 또 한일성공회청년세미나가 또 열린다면 참여하고싶다.

<허재훈>

나에게 한일청년세미나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기분이다. 참가 할 때마다 느끼지만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나를 더욱 설레게 한다. 일본어를 배운 계기도 한일청년세미나를 참가하면서부터이다. 왜냐고? 영어는 어려우니깐...

이번이 4번째 참가.

처음으로 스텝및참가자이다. 세미나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분들의 얼굴들이 떠오른다. 한국스텝, 일본스텝, 그리고 모든 한일참가자들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한다.

나로서 한국에서 열리는 한일청년세미나는 2번째였다. 서울에서 열린 2007년 이후로 6년만이다. 이번에 참가하면서 느꼈지만 나는 일본어를 배우길 잘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외국어 하나 정도는 해야 한다는 어머니의 말씀에 배울 때 는 힘들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정말 멋진 선택이었다. 어머니께 감사드리는 마음은 언제나 있지만 내가 일본인과 이야기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더욱더 그렇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에 참가한 3번과는 다르게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다. 비록 4박5일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인과 역사이야기를 할 때 서로의 모르는 점을 알려주고 우리도 궁금한 점을 배울 수 있었다.

그 중에 성공회신문에도 기재를 했지만 '함께 걷자! 프로젝트'는 아직도 내 머릿속에 남아있다. 그때 여러 일본인들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면서 듣고 있는데 가슴이 답답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금도 한국은 원전을 계속해서 짓고 있다. 전 세계에서 원전 보

時に、多く登場した地域であったためなのかは分からないが、わけもなく震えた。それぞれの広報館はあまりにも美しく展示されていたが、別に読みたいとも思わなかったし、なぜ私が原子力が稼働する原理を知ら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という考えのみだった。古里原子力発電所で現在の韓国の原子力発電所に対する認識と、途方もない不正の話を聞いて衝撃を受けたことは勿論、加えて私が韓国人という事実が恥ずかしく感じた。一番衝撃的だった話は非常計画区域以内の避難練習がないのみならず、その地域の消防署員があまりにも安心するあまり麻薬を服用したことがあるという事実だった。夕方に梁在成牧師の講演を聞いて原子力自体の危険性をあらためて感じることができ、韓国をはじめとして東北アジア自体が一つの巨大な火薬庫という事実に鳥肌が立った。また、原子力のない国デンマークの話を聞いて韓国もその気になれば核のない所で暮らせ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思いが湧き、今まで決心して原子力をなくそうとしなかった人たちと、今になってこのような事実を知ることになった私自身に失望した。

三日目に韓国と日本のキリスト教の関係に対する（松山）健作氏の講演はとても難しかったが、ノンちゃん（松村希）が進行した「一緒に歩こう！プロジェクト」の話はこっそりと泣きながら見た。実際に（被災を）体験した話を聞いたからなのか、より一層心苦しくなった。また、一筋の希望を捨てようとしない人たちの話を見て､簡単にあきらめてしまう私自身が恥ずかしかった｡自由時間の時、皆一緒に歩き回った時間はとても良かった。ちょうど日も沈む時間で涼しかったし、その間多くの話を交わすことが出来なかった人たちと話を分かち合うことができて良かった。

四日目に仏国寺と石窟庵に行ってきた時も、民俗村に行ってきた時も、とても暑くて大変だったりしたが、その分皆と一緒に歩きながら、色々な話ができて良かった。 夕方に日本の浴衣を着たことも良い経験だったと思う。そして韓国にくる前から熱心に準備してくれた日本側の公演も面白かった。

4泊5日の間、色々な所に行ったことも楽しかったが、講演を聞いたり、移動し終えた後に、グループ別に集まって原子力発電所や、日韓状況に対する率直な話を交わすことができて良かった。話だけで終わらないで、各グループ別で祈祷文を作る機会があったこともまた新鮮な経験なので良かった。一夏夜に見た夢のように4泊5日という時間がすぐに過ぎ去ってしまい惜しいばかりだ。次回も日韓聖公会青年セミナーが開かれるならばまた参加したい。

<허재훈>（ホ・ジェフン）

私にとって日韓青年セミナーは彼女に会いに行く気分だ。参加するたびに感じるけど、新しい人たちとの出会いは自分をもっとときめくようにする。日本語を習ったきっかけも、日韓青年セミナーに参加してからである。なぜかって?英語は難しいから…

今回が4度目の参加。

初めてスタッフ兼参加者である。セミナーに向けて苦労していただいた方たちの顔が浮かぶ。韓国のスタッフ、日本スタッフ、そして全ての日韓両国の参加者たちにとても感謝して、愛している。

私にとって韓国で開かれる日韓青年セミナーは2回目だった。ソウルで開かれた2007年以来6年ぶりだった。今回参加してみて思ったが、私は日本語を習って良かった。何が何でも外国語一つくらいは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母の話から学び始めた時は大変だったが今振り返ると本当に素敵な選択だった。母への感謝の心はいつもあるが、日本人と話している自身の姿を見た時、さらにそうだ。

今回のセミナーでは以前に参加した3回のものとは異なりセミナー形式で進められた。4泊5日の短い期間ではあったが、近くて遠い国、日本の人と歴史の話をする時お互いのわからない点を教えてあって、私たちも知りたい点を学ぶことが出来ました。

その中で「聖公会新聞」にも掲載したが、「一緒に歩こう!プロジェクト」がまだ私の頭の中に残っている。その時様々な日本の人たちが出て説明をしてくれたが、聞いていて胸が苦しかった。韓国もそのようにな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ことを見せてくれた。今も韓国は、原発を継続して建てている。全世界で原発保有国1位だ。私たちはどのようにこれを受け止めるべきか?心配が先立つ。

유국 1위이다.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어야 할까? 걱정이 앞선다.
성공회를 다니고 한일청년세미나에서 만나 서로의 언어는 달랐지만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도움을 주거나 받을 수 있는 친구를 얻은 기분이다. 내년에도 꼭 참가하고 싶다. 일본은 항상 내 마음속 가고 싶은 나라 1위이다. 반드시 한일청년세미나에서 만난 한일커플이 탄생해서 나의 미래를 그녀와 함께 걷고 싶다.
모두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걸읍시다.

＜김은경＞

8월 12일부터 16일, 4박 5일 동안 한일성공회청년세미나를 다녀왔다. 대학로교회에서 윤지혜 청년과 신학생인 내가 한일성공회청년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셔서 다녀올 수 있었다. 참여를 결정한 이후 일정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더니 탈핵과 관련된 주제 강연이 있는 것을 알게 됐다. 딱 2년 반 전에 친동생이 도쿄에 있다가 큰 지진이 났다며 연락한 이후 딱 하루 동안 연락이 두절됐던 일이 떠올랐다. 동생은 집이 요코하마에 있고, 학교가 도쿄에 있는 관계로 수업을 마친 후 집으로 가려고 열차에 올라탔다가 철로가 끊겨서 걷다가 결국 다시 도쿄로 돌아가서 학교 친구네 집에서 하루를 머물렀다고 했다. 그때는 한국 언론에서도 연일 후쿠시마 쓰나미에 관해 보도하고 있었고 동생이 후쿠시마는 아니어도 대지진의 여파로 인한 어려움을 직접 겪는 것을 같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충격이 어떠한지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당시에 일본 내에서는 언론도 후쿠시마의 핵발전소 폭발 사고 관련한 소식에 대해 언론에서 차단하고 있었다고 들었다. 동생은 오히려 한국에 있는 나보다도 현지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 나는 인터넷을 통해 후쿠시마 상황을 주의깊게 살폈다. 당시에는 MIT 분석 자료와 독일 기상청의 대류 분석 자료를 통해서 후쿠시마 방사능 기류의 흐름도를 시간별로 분석해서 공개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도 몇 개월간은 그것으로 방사능의 확산도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었다.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핵발전소를 설비한 전문 학자나 연구자들은 사고 현장에 가지도 않고,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들만이 사고 처리를 맡고 있다고 들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결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숙식을 한다는 소식도 전해 들었다. 그 소식을 듣고 매우 마음이 아파서 그 분들을 살려주시고,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전세계가 힘을 모아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었다. 슬픔과 아픔이 동시에 떠오르면서 이번 한일성공회청년세미나에 참여했다.

고리 월성 원자력발전소를 방문했다. 부산환경연대 사무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고리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을 돌아보며 놀랐던 것은, 핵발전소 인근에 그 지역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핵발전소로부터 배출되는 물이 흘러가는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다. 핵발전소 주변에는 삼중 수소라는 것이 떠다니며 암을 유발하는 방사능을 배출한다고 들었다. 따라서 그 인근 주민들은 핵발전소가 없는 지역 주민에 비해 2.5배나 갑상선 암 발병률이 높다는 정부의 공식 통계가 있다고 했다. 그런데 핵발전소 주변에는 핵발전소 홍보관과 함께 발전소 유치의 대가로 정부가 지역주민들에게 세워준 문화시설이 있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문화시설과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핵발전소는 설명하기 어려운 이율배반적인 정부 정책의 두 얼굴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여주었다. 둘째 날까지는 핵발전소 탐방과 함께 강의와 증언을 듣고, 조별 토의를 했다. 직접 후쿠시마를 겪은 일본인들과 함께 대화를 하며 핵발전소는 인류가 손을 대지 말아야 할 것에 손을 댄 것이라는 합의를 도출했고, 함께 기도문을 작성했다.

셋째 날에는 켄사쿠상을 통해서 기독교와 국가주의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 켄사쿠의 관점이 한일 관계가 평화를 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강의 등을 토대로 조별 토의를 했는데, 이때 정신대 문제 등 아직 국가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사안 등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 조는 정신대 문제를 인권에 대한 국가의 폭력으로 규정하였고,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라는 국가의 국민이기에 앞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데에 합의했고, 함께 기도문을 완성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일본어를 전혀 못하기 때문에 걱정을 했지만, 허재훈 원우와 켄사쿠 상이 통역을 잘해줘서 하고 싶은 말을 모두 전달할 수 있었고, 일본인들의 의견도 잘 이해

聖公会に通っていて日韓青年セミナーで出会って、お互いの言語は違ったが、お互いの考え方を共有して助けあったりすることができて友達を得た気分だ。来年も是非参加したい。日本はいつも私の心の中で行ってみたい国1位です。必ず日韓青年セミナーで出会った日韓カップルが誕生して私の未来を彼女と一緒に歩きたいです。

みんな会いたいです。そして一緒に歩きましょう！

<김은경>（キム・ウンギョン）

8月12日から16日、4泊5日間、日韓聖公会青年セミナーに行ってきた。大学路（テハンノ）教会からユン・ジヒェさんと神学生である私がセミナーに参加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支援してくださり参加が可能となった。参加を決めた後、日程をさらに詳しく見てみたところ脱核と関連した主題講演があることが分かった。ちょうど2年半前に東京にいた妹が大きな地震が起こったと連絡した後、ぴたっと一日の間、連絡が途絶えたことを思い出した。 妹の家は横浜にあって、学校が東京にある関係で授業を終えた後、家に帰ろうと列車に乗っていたとき鉄道が途切れて、歩いて結局再び東京に戻り、学校の友人の家で一日留まったと言っていた。その時は韓国のメディアでも連日福島の津波に関して報道していたし妹が福島ではないにしても大地震の余波による困難を直接体験したことを一緒に経験していたのでその衝撃がどうであったかは深く理解することができた。当時日本国内では福島の原子力発電所爆発事故に関連した報告に対してメディアでは遮断していたと聞いた。妹はむしろ韓国にいる私よりも現地状況を知らずにいた。私はインターネットを通じて福島の状況を注意深く伺った。MIT分析資料とドイツ気象庁の対流分析資料が福島放射能の気流を時間別に分析して公開していたので、私も何ヶ月間はそれで放射能の拡散度を確認した。また福島原子力発電所を設備した専門学者や研究者は事故現場に行くこともせず、非正規職の日雇い労働者だけが事故処理を受け持っていること、彼らが決して放射能から安全でないところで宿泊しているという知らせを伝え聞いた。その知らせを聞いて非常に心苦しくなり、その方たちを助けてくださるように、福島原子力発電所事故を全世界が力を合わせて解決できるようにしてくださるようにと祈った。悲しみと痛みが同時に湧きおこるなかで今回の日韓聖公会青年セミナーに参加した。

古里、月城原子力発電所を訪問した。釜山環境連帯事務局長の説明を聞き、古里原子力発電所周辺地域を見て回って驚いたことは、原子力発電所の近隣にその地域住民たちが居住しており、さらには原子力発電所から排出される水が流れていく海辺で釣りをしていたことだ。原子力発電所周辺には三重水素というものが漂っており、癌を誘発する放射能を排出すると聞いた。したがってその近隣住民たちは原子力発電所がない地域住民に比べて2.5倍も甲状腺癌発病率が高いという政府の公式統計があると言っていた。ところで原子力発電所周辺には原子力発電所広報館と共に発電所誘致の代価で政府が地域住民に立ててあげた文化施設があった。住民たちの生活の質を高める文化施設と住民たちの健康を害する原子力発電所は説明の難しい二律背反的な政府政策の二つの顔をはっきりと見せてくれた。二日目までは原子力発電所探訪と共に講義や証言を聞いて、組別討議をした。直接フクシマを体験した日本の人たちと共に対話しながら原子力発電所は人類が手をつけてはならないものに手をつけたものという合意を導き出し、共に祈祷文を作成した。

三日目には健作さんを通してキリスト教と国家主義に関する講義を聞いた。健作さんの観点が日韓関係が平和を期するのに多くの役に立つと思った。この講義などを土台に組別討議をしたが、この時、挺身隊問題等まだ国家的に解決されていない事案などに対しても虚心坦壊に意見を交換した。私たちの組は挺身隊問題を人権に対する国家の暴力と規定し、私たちは韓国と日本という国家の国民である前にキリスト者であるという点に合意し、共に祈祷文を完成した。私は個人的に日本語が全くできないので心配したが、ホ・ジェフンと健作さんが通訳をよくしてくれて、言いたいことを全部伝達できたし、日本の人たちの意見もよく理解できて非常にありがたかった。4泊5日間のすべての日程を通し

할 수 있어서 매우 감사했다. 4박 5일간의 모든 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고, 그리스도인이 이룰 수 있는 평화는 국가를 넘어설 수 있고, 인류의 탐욕을 넘어서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신하는 계기가 됐다.

자리를 마련해주신 나의 후견인 원혜경 마리아 선생님과 관할 사제이신 이재복 신부님, 그리고 함께 해준 윤지혜 청년과 한일성공회청년세미나의 모든 원고를 번역하느라 수고한 세이와, 모든 실무를 담당하신 이상훈 부제님, 한일관계의 역사의 산 증인인 유시경 신부님의 강연, 사진을 찍어주신 양승우 신부님, 통역으로 수고하신 허재훈 원우와 켄사쿠, 함께 생각과 마음을 나누어 준 조원들에게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언어를 준비하지 못한 게으른 방친구인 나를 따뜻한 미소로 반겨준 키요미 부제님과 레이코 상,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언니와 함께 방을 써준 양진경 등 지나고 보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맙고, 반가웠다는 생각이 든다. 기회가 되면 또 만나면 좋겠다.

＜久保田愛美＞ (쿠보타 마나미)

이번 이 세미나에 참석하고 정말로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일이 안고 있는 원자력 발전 문제를 양국 함께 생각한 것이 정말 귀중한 체험이었습니다. 대학시절에 이런 경험을 한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 친구가 생김에 따라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내년에도 꼭 참가하고 싶습니다.

<大山洋平>(오오야마 요헤이)

저는 한일 성공회 청년 세미나에 처음 참가하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쿠노센터하고 관계있는 교회의 선배로부터 한국을 알 필요가 있다고 가르쳐 줘서 이번에 청년 세미나에 참석한 일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청년 세미나에서는 원전이나 생태계에 대해 또 한일의 성공회의 역사에 대해 대한성공회 청년과 함께 배울 수 있었습니다.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 2년 이상 된 이 청년 세미나를 통해서 나는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보다 더 괴로운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재해 체험에 대해 이야기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동일본 대지진을 화면 속 사건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체험으로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스스로의 재해 체험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지진 재해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나 한국이라는 곳이었기에 나아갈 수 있는 한 걸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청년들도 나의 눈을 보고 메모를 하면서 다양한 우리의 생각을 받아 준 거라고 느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나에게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한국과의 역사와 교제에 의해 진지하게 마주 볼 필요가 있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년 세미나에서 얻은 친구들과 함께 풍요로운 교제를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해 주신 한국 스텝분들, 통역 해 준 분들, 그리고 이 만남에 감사드립니다.

<安藤 由花理>(안도 유카리)

저는 이번 세미나에서 성공회에 이렇게 젊은사람이 있는것에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 실감이 없었고 함께 걷자 프로젝트 등 성공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활동도 어딘가 멀리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자신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원전이나 한일 역사인식 등 참가자 모두가 서로 생각을 나누며, 느낌점을 공유하는 공간은 매우 의미 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て多くのことを学び、キリスト者が成し遂げることができる平和は国家を越えることができ、人類の貪欲を越えるようにする原動力にな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を今一度確信する契機となった。
セミナー参加のための席を用意してくださった私の後見人ウォン・ヘギョン（マリア）先生と管轄司祭であるイ・ジェボク司祭様、そしてセミナーを共にしてくれたユン・ジヒェさんと日韓聖公会青年セミナーのすべての原稿を翻訳するのに苦労したセイワ、すべての実務を担当されたイ・サンフン執事様、日韓関係の歴史の生き証人である柳時京司祭の講演、写真を撮って下さったヤン・スンウ司祭、通訳で苦労されたホ・ジェフンとケンサク、共に意見と心を分かち合ったグループのみなさんに感謝の気持ちを伝える。また、日本語ができない私を暖かい笑みで歓迎してくださった同じ部屋のキヨミ執事様とレイコさん、歳が大きく離れた私とともに部屋を使ってくれたヤン・ジンギョンなど、過ぎてみるととても多くの人たちに有難く、うれしかったという気持ちがする。機会があれば、また会いたい。

＜久保田愛美＞
今回このセミナーに参加して本当に良かったと思っています。日韓が抱える原発問題を両国一緒になって考えられたことは、ほんとに貴重な体験でした。大学生の間にこのような経験ができたことに感謝しています。
また韓国に友達ができたことによって、韓国への興味が湧きました。来年も是非参加したいと思っています。

＜大山洋平＞
私は、日韓聖公会青年セミナーに始めて参加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前々から生野センターに関わる教会の先輩方から韓国を知る必要があると教えられてきて今回やっと青年セミナーに参加する事が出来た事をとても嬉しく思っています。
今回の青年セミナーでは原発や生態系について、また、日韓の聖公会の歴史について大韓聖公会の青年と共に学びの場を持つ事ができました。
東日本大震災から2年以上たったこの青年セミナーで私は変えられました。今までは、「私よりももっと辛い思いをしている方々が沢山いる」と思い、自らの被災体験について話す事が出来ませんでした。しかし、今回は「東日本大震災を画面の中の出来事にしないで、自分自身の体験としてここにいる人々に語りたい」と考え、自らの被災体験を話す事ができました。 震災から2年以上が過ぎ、韓国という土地でだからこそ踏み出せた一歩だと思います。韓国の青年たちも、こちらの目を見て、メモを取りながら様々な私たちの想いを受け取ってくれたように感じます。この出来事は私にとっての変化のみではなく、私たちがこれから韓国との歴史や交わりにより真摯に向き合う必要がある事を教えてくれていると思います。
この青年セミナーで手に入れた仲間と共により豊かな交わりを目指して前進していきたいです。
最後に、準備をして下さった韓国のスタッフの方々、通訳をしてくれた方々、そしてこの出会いに感謝します。

〈安藤　由花理〉
私は今回のセミナーで、こんなに聖公会に若者がいることに驚きました。今まで、キリスト者という言葉に実感がなく、いっしょに歩こうプロジェクトなど、聖公会で行われている活動も、どこか遠くで行われているようで、自分とは関係ないと思っていました。今回のセミナーで、自分がキリスト者であることをきちんと認識したと思います。そのうえで、原発や日韓の歴史認識などを、参加者の皆さんと分かち合い、感じたことを共有する空間は、非常に意義深いものだと思いました。日韓どち

한일 참가자들도 스텝들도 상냥하고 정중하게 잘 대해주셔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 연결을 중요하게, 계속해서 걸어가고 싶습니다.

<藤井 和人>(후지이 카즈히토)

이제 한일청년세미나를 끝내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끝났다는 쓸쓸함과 함께 이제부터 새로운 길을 가야만 하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뒤돌아보면 단순소박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은 나라나 언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기도의 공간과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들 앞에 하느님은 한분이시다는 입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성가를 부를때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야말로 멜로디에 깊이가 더해졌습니다. 그 현장감이 지금에도 나의 피부에 전해오는 듯 합니다.

이번 한일청년세미나에서 스스로 만지고, 느끼고, 기억한 한국의 노래를 앞으로도 기타를 치면서 흥얼거리고 싶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셔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고, 여러분과 함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우 신부>(교육훈련국)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있다. 이 말은 "무엇에 놀라면, 그와 비슷한 것만 봐도 겁이 난다."는 것을 비유해 이르는 말로, 일본 후쿠시마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세계 1위 원전밀집국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역 해안에서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났고, 그 여파로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이 유출되었다. 그로인해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고, 그 주변 생태계가 파괴되어 죽음의 땅으로 변하게 되었다. 더구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유출되었으니, 그 영향력이 얼마나 넓게 퍼져나갈지는 걱정이다.

만약 우리나라 고리원전에서 후쿠시마와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후쿠시마 원전 주변 반경 30㎞ 이내 지역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데, 고리원전의 반경 30km 지역은 부산지역이 대부분이 해당된다. 만약 고리원전에서 사고가 난다면, 우리나라 제 2의 도시인 부산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재빠르게 다른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한다. 방사능 물질이 부산시를 뒤덮는 데는 3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고리원전 폭발하면 3시간 내 부산 전역 피폭"(부산일보 2011-04-01))고리원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지만, 그것이 부산에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후쿠시마원전은 1971년 3월에 가동을 개시하였고, 고리원전은 1978년 4월에 개시하였는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고리(5기)를 비롯하여 영광(6기) 월성(4기) 울진(6기) 등 총 21기가 가동되고 있으며 7기가 계획 중이라고 설명을 들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후쿠시마원전은 비등수로형인데 고리원전은 가압경수로형이라는 것이다. 비등수로형은 원자로 자체가 증기발생기 기능을 담당해서 원자로 건물이 차단되고 교류전원이 상실 되었을 때 자연순환의 냉각이 이뤄지지 않는 반면, 가압경수로형은 인위적 급수방식에 의한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자연순환 냉각이 이루어진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1979년의 미국 스리마일섬(Three Mile Island) 원전사고와 1986년의 구소련의 체르노빌(Chernobyl) 원전사고에 필적하는 대형사고로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스리마일섬과 체르노빌 사고는 인재인 반면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대지진과 쓰나미라는 자연재해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홍보관에서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지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는 글을 보았다. 과연 안심해도 될까?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우리나라의 원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점검을

らの参加者の方もスタッフの方も、優しく丁寧に接してくださったので、安心して過ごすことが出来ました。このつながりを大事に、これから歩んでいきたいと思います。

〈藤井 和人〉

今この時、日韓青年セミナーを終えて、一周間が過ぎようとしています。終わった寂しさと共に、これから新たな道を進んで行かなくてはならないという複雑な気持ちがあります。

振り返ってみると、単純素朴に思うことは、私たちは国や言語が違うにもかかわらず、ひとつの祈りの空気と時間を持つことができたということです。これは感動の何ものでもありません。私たちの前に神様はひとつである、その証でもありました。みなさんと聖歌を歌ったときは、言語が違うからこそメロディーに厚みを増した、あの臨場感が今でも私の肌に伝わって来るかのようです。

今回の日韓青年セミナーで自ら触れ、覚えた韓国の歌を、これからもギターを弾きながら口ずさみたいと思います。

私たちの交わりの中にイエス様が共にいてくださったことに感謝し、みなさんと一緒に生活を共に過ごすことができたことを誇りに思います。ありがとうがざいました。

<양승우 신부>ヤン・スンウ司祭（教育訓練局）

「スッポンを見て驚いた者が釜の蓋を見て驚く」という諺がある。「何かに驚けば、それと似たものを見だけでも怖くなる」ということを比喩した言葉で、日本の福島事故を眺めている私たちにも適用されるはずだ。私たちは世界1位の原子力発電所密集国に住んでいるためだ。

去る2011年3月11日、日本東北部地域海岸で地震と津波が起き、その余波で福島原子力発電所から放射能が流出した。それによって多くの被災者が発生し、その周辺の生態系が破壊され死の土地に変わることとなった。しかも放射能による汚染水が海に流出したので、その影響力がどれくらい広まるのか心配だ。

もし韓国の古里原子力発電所で福島と同じ事故が発生すればどうなるだろうか? 福島原子力発電所の周辺半径30km以内地域は非常に危険であるため出入りを制限しているが、古里原子力発電所の半径30km地域は釜山地域の大部分が該当する。もし古里原子力発電所で事故が起きたのならば、韓国第2の都市である釜山に住む人々は皆いち早く他の所へ待避しなければならない。放射能物質が釜山市を覆うのに3時間もかからないためだ。(「古里原子力発電所、爆発すれば3時間内釜山全域被爆」(釜山日報2011年4月1日)) 古里原子力発電所については何度も聞いたことがあるが、それが釜山からこんなに近い所に位置しているという事実は知らずにいた。

福島原子力発電所は1971年3月に、古里原子力発電所は1978年4月に稼働を開始したが、現在韓国には古里(5基)をはじめとして靈光(6期)、月城(4基)、蔚珍(6基)等、総21基が稼動しており、さらに7基が建設計画中だという説明を聞いた。

それでもまだ幸いなのは福島原子力発電所が沸騰水路型であるのに対し古里原子力発電所は加圧軽水炉型であるということだ。沸騰水路型は原子炉自体が蒸気発生器機能を担当しており、原子炉の建物が遮断されて交流電源が止まった時自然循環の冷却がなされない反面、加圧軽水炉型は人為的給水方式による原子炉冷却材系統の自然循環冷却が成り立つ。

福島原発事故は1979年の米国、スリーマイル島(Three Mile Island)原発事故と1986年の旧ソ連のチェルノブイリ(Chernobyl)原発事故に匹敵する大事故と記録されるだろう。しかし、スリーマイル島とチェルノブイリ事故は人災である反面、福島原発事故は大地震と津波という自然災害によって発生したものだ。

広報館で韓国は日本のような地震が発生しないので安心してよいという文章を見た。果たして安心してもかまわないだろうか。福島原発事故によって韓国の原子力発電所に対しても、再度点検するこ

하게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으나, 최근 밝혀진 원전비리 관련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 원전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원전사고가 일어난다면, 그건 자연재해 보다는 인재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더구나 원전밀집도가 높고, 원전이 대도시 부근에 있기 때문에 그 피해는 후쿠시마에 비할바가 아닐 것이다.

국내 최고령 원전인 고리 1호기의 안전성을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원자력 당국 간 논란이 심하다. 고리 1호기는 1978년 상업 운전에 들어가 2007년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되었지만, 당국은 '전력난'을 이유로 주민과 환경단체의 폐쇄 요구를 무시하고, 원전 수명을 10년 더 늘렸다고 한다.

부산환경운동연합에서는 핵 없는 안전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고리 1호기의 폐쇄를 주장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고리원전을 당장 폐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안전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최근 드러난 원전비리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철저한 안전관리가 있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대체 에너지를 개발에 힘써서 마침내는 핵의 위협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가자! 핵을 넘어서 모든 생명이 공존하는 세상으로"

＜小林聡司祭＞바르나바 코바야시 사토시 신부 (일본 성공회 청년 위원회 위원장)

대한 성공회 한일 협동 프로젝트 위원회 여러분, 스텝 여러분, 참가자 여러분
세미나 개최에 있어서 많은 기도와 지원을 정말 감사합니다. "핵을 넘어"라는 주제는 우리가 함께 핵 피해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쟁 책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된 청년 캠프/세미나는 타인의 목소리를 듣지 못 했던 것을 참회하고,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을 통해 갈등을 넘는 지평으로 열리고 있는 것을 체험해 왔습니다. 8월 15일 경주·불국사를 방문했을 때 과거 일본 침략자들이 석상을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역사의 아픔은 지금도 이어져 또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 사고에 따른 방사능 오염 폐수는 수습의 목표가 서 있지 않습니다. 가해의 인식은 귀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재차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인지를 넘어 양육해주는 하느님의 인도를 앞으로도 기도합니다. 내년의 준비, 지금부터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とになりまだ幸いだといえるが、最近明らかになった原子力発電所不正関連ニュースを見ると、韓国原子力発電所が徹底して管理されているのか疑問だ。もし韓国で原発事故が起きるならば、それは自然災害よりは人災による可能性が高いだろう。しかも原子力発電所密集度が高く、原子力発電所が大都市付近にあるため、その被害は福島に比べるところではないだろう。

国内最高齢原子力発電所である古里1号機の安全性を巡って市民団体と原子力当局間の論議が激しい。古里1号機は1978年商業運転に入って2007年設計寿命30年が満了したが、当局は‘電力難’を理由に住民と環境団体の閉鎖要求を無視して、原子力発電所寿命をさらに10年間増やしたという。

釜山環境運動連合では核のない安全な釜山を作るために古里1号機の閉鎖を主張するが、色々な条件上、古里原子力発電所を直ちに閉鎖することが出来るかは疑問だ。しかしどんな状況であっても絶対安全というのはありえない。ゆえに、福島原発事故と最近明らかとなった原子力発電所不正事件を反面教師として、徹底した安全管理が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そして長期的には代替エネルギーの開発に努力してついに核の威嚇から抜け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

“行こう！ 核を越え、すべての生命が共存する世界へ”

＜日本聖公会青年委員会　委員長　司祭　バルナバ小林聡＞

大韓聖公会韓日協働プロジェクト委員会のみなさま、スタッフのみなさま、参加者のみなさま

セミナー開催にあたり、沢山の祈りとお支え、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核を越えて″というテーマは、わたしたちがいっしょに、核の被害者の声に耳を傾けることを通してなしえることが出来ると思いました。戦争責任の告白から始まった青年のキャンプ/セミナーは、他者の声に聞くことが出来なかったことを懺悔し、耳を傾け続けることを通して、葛藤を越える地平へと開かれていることを体験してきました。8月15日、慶州・仏國寺を訪れた時、かつて日本からの侵略者たちが石像を持ち去った事実を知らされました。歴史の痛みは今も続き、また福島第一原発事故による放射能汚染の垂れ流しは、収束のめどが立っていません。加害の認識は、耳を傾け続けることだとあらためて思いました。人知を超えて養ってくださる神さまの導きをこれからも祈ります。来年の準備、今からいっしょに出来ればと思います。

2013.08.12-2013.08.16 Memory Of Kyeongju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감사합니다!

２０１３日韓聖公会青年セミナー報告書

編　集　　青年委員会
発行日　　２０１３年１１月
印　刷　　日本聖公会　管区事務所　（４００部）